

석사학위논문

三姓神話의 儀禮的 性格과 教育的 意味

지도교수 : 현 승 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고 병 석

2004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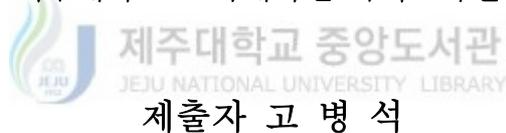
# 三性神話의 儀禮的 性格과 教育的 意味

지도교수 : 현 승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6월 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제출자 고 병 석

고병석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국문초록>

## 三姓神話의 儀禮的 性格과 教育的 意味

고 병 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현 승 환

제주도의 堂이 巫俗儀禮로써의 당굿과 堂神話로써의 당본풀이가 있듯이 삼성신화도 문헌에 기록되어 전승되는 神話와 儀禮인 <春秋祭>와 <乾時大祭>가 있다.

三姓神話는 堂神話와 그 話素의 유사성에서 볼 때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 三姓祠는 이전에 堂이었을 것이며, 그 儀禮도 광양당굿과 마찬가지로 본래는 巫俗儀禮로 행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이후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무속의례가 유식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그리고 高良夫 三氏族은 이 신을 奉祀했던 <단골>씨족으로 본다.

三姓祭儀는 무속의례인 당굿에서 유식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춘추제와 건시대제로 치러지고 있다.

그리고 이 <春秋祭>와 <乾時大祭>의 典型은 <宗廟祭禮>와 <社稷大祭>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유식화된 삼성제의가 갖는 의례의 의미로는 <春秋祭>가 종묘제례와 같이 건국시조에 대한 제례로 지내져 왔고, <乾時大祭>는 社稷神에 대한 제례로 지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의례적 측면에서 삼성신화는 그 성격을 탐라의 건국신화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三姓神話의 教育的 意味는 口碑文學 教育的 目的 및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문학교육의 방향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설화가 구전되다가 문헌에 정착하는 과정을 알 수 있으며, 문헌 정착 후 구비문학으로서의 유동성이 사라지고 기록문학으로만 인식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둘째, 설화문학으로써의 흥미성과 교훈성을 알 수 있다.

셋째, 신화 형성기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타문화와의 영향 관계를 알 수 있다.

넷째, 신화 속에 반영된 조상들의 가치관이나 의식 및 세계관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신화를 통하여 문학의 허구성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신화와 관련된 삼성제의의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고대사회의 예술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일곱째, 말하기, 듣기, 읽기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 이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차 례

<국문초록> .....	i
I. 序 論 .....	1
II. 三姓神話의 樣相 .....	4
1. 삼성신화의 形成과 傳承 .....	4
2. 삼성신화의 文化的 系統 .....	14
3. 삼성신화의 文化 背景 .....	20
III. 三姓神話의 儀禮的 性格 .....	23
1. 巫俗式 儀禮 .....	23
1) 당국의 樣相 .....	23
2) 당국의 儒式化 .....	36
3) 당국과 삼성신화 .....	45
2. 儒敎式 儀禮 .....	47
1) 宗廟祭禮와 社稷大祭 .....	47
2) 春秋祭와 乾時大祭 .....	51
3) 三姓祭儀의 意味 .....	58
IV. 三姓神話의 敎育的 意味 .....	62
1. 口碑文學 敎育의 必要性 및 目的 .....	62
2. 제7차 敎育課程에서의 文學 敎育 .....	63
3. 三姓神話의 敎育的 意義 .....	65
V. 結 論 .....	68
<參考文獻> .....	71
<Abstract> .....	75

## I. 序 論

三姓神話는 탐라국의 건국신화이면서 高·良·夫 三姓의 始祖神話로 연구되어 왔다.<sup>1)</sup> 지금까지 연구는 주로 1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여러 문헌에 기록된 문헌 자료를 토대로 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고, 구전 설화 자료나 제주도 당신화와 비교를 통해서도 깊이 있게 고찰된 바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요소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리면,

첫째, 그 명칭에 있어서 ‘三姓神話’로 할 것이냐 ‘乙那神話’ 또는 ‘三乙那神話’로 명명할 것이냐의 문제다. ‘삼성신화’는 ‘濟州道 三姓始祖神話’를 줄여서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대해 건국신화로서의 위치를 성씨 중심의 이야기로 격하시키려는 고의적 의도에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耽羅部族神話’인 ‘삼성신화’를 ‘乙那神話’로 부르자는 제안이 있었다.<sup>2)</sup> 이외에도 ‘三乙那神話’, ‘耽羅建國神話’ 등으로 명명하자는 주장도 제시된 바 있다.

둘째, 여러 종류의 傳本으로 말미암은 그 선후 문제와 善本의 문제다. 삼성신화가 기록된 문헌들 중에서 『高麗史地理誌』, 『瀛洲誌』 등 몇몇 자료를 제외하면 대부분 高良夫 삼성의 족보와 관련된 기록들이어서 삼성의 序次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三神女의 國籍, 渡來 방법, 君臣序列 등 사소한 차이가 있으나 신화 해석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sup>3)</sup>

셋째, 신화 형성과 그 전승에 관한 문제다. 삼성신화의 원형을 제주도의 서사무가인 당신본풀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4)</sup> 고양부 三姓氏族의 조상

1)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이 논문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에 재수록됨)

장주근, “삼성신화의 형성과 문헌정착과정”, 『탐라문화』 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2) 진경수, “을나신화의 문화전통과 탈전통”, 『탐라문화』 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3) 허춘, “삼성신화연구-성과와 과제”, 『탐라문화』 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4) 장주근, “삼성신화 해석의 한 시도”, 『국어국문학』 22, 국어국문학회, 1960.

신본풀이이면서 堂의 본풀이적 성격의 신화로 출발하여 세 씨족이 시조신화로 발전하고 씨족연합에 의한 부족국가로 성장하면서 건국신화로 위상이 바뀌어 전승되었을 것으로 보는 관점<sup>5)</sup>과 반대로 건국신화에서 출발하여 高良夫 三姓氏族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三氏族의 始祖神話로 전승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넷째, 문화 계통과 배경에 관련된 문제다. 삼성신화의 중심 화소들을 분석하여 남방계 문화 요소의 유입으로 보는 시각<sup>6)</sup>과 남방계 요소뿐만 아니라 북방계 문화와의 영향 관계로 보는 관점<sup>7)</sup>이 있다.

다섯째, 三姓祭儀의 유식화 문제다. 삼성신화가 당신화에 기원을 둔다면 三乙那神도 堂神일 것이며, 그 제의 또한 무속의례인 당굿으로 행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8)</sup> 당굿이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교정책으로 말미암아 유교식 의례인 포제로 유식화된 것처럼 三姓祭儀도 같은 과정을 밟았다. 그런데 삼성신화가 제주의 당신화와 관련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三姓祭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여섯째, 신화의 성격을 탐라건국신화로 보느냐 아니면 삼성씨족의 시조신화로 보느냐의 문제다. 삼성씨족의 시조신화인 동시에 탐라의 개국신화로 보는 관점<sup>9)</sup>과 三姓氏族의 시조신화로 파악하는데 반대하여 혈연을 기초로 한 씨족 사회의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의 출현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탐라부족신화’로 보는 관점<sup>10)</sup>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신화와 제의의 두 측면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신화와 제의는 그 선후 관계를 규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며, 또 신

---

현용준, 앞의 책.

5) 강정식, “삼성신화의 전승양상”, 『제주문화연구』, 현지김영돈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 1993.

6)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앞의 논문.

7) 허남춘, “삼성신화 일고찰”,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현승환,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문화계통”, 『제주문화연구』, 제주문화, 1993.

8) 현용준, “당굿의 유식화와 삼성신화”, 『제주도』 14호, 제주도, 1964.(이 논문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에 재수록됨)

9)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장주근, 앞의 글, p.113.

강정식, 앞의 글, p.183.

10) 전경수, 앞의 글, pp.123~124.

화와 제의를 굳이 별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신화적 측면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드는 제의를 살펴봄으로써 이 신화의 새로운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과거 제주도의 堂은 무속의례로서의 당굿과 당신화로서의 당본풀이를 동시에 함축한다. 그런데 무속의례로서의 당굿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당신화 즉 당본풀이에 대한 연구가 훨씬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것처럼 삼성신화에 대해서도 그 신화적 측면의 연구에 비해서 의례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면이 있다.

이 연구는 삼성신화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늘날 주기적으로 致祭하고 있는 三姓祭儀인 ‘春秋祭’와 ‘乾時大祭’의 의례 절차와 조선시대 왕실의 ‘宗廟祭禮’ 및 ‘社稷大祭’ 그리고 마을제인 당굿과 포제를 비교 · 고찰하여 삼성신화의 제의적 의미를 확인하며, 나아가 교육적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 Ⅱ. 三姓神話의 樣相

### 1. 삼성신화의 形成과 傳承

삼성신화의 형성은 지금까지 선행 연구 결과<sup>11)</sup>를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당신(堂神)본풀이의 기본 話素인男神의 湧出, 女神의 入島, 座定經緯譚, 男女神의 婚姻 등과 삼성신화의 중심 話素인 三神人 地中湧出, 三神女 漂着 婚姻, 射矢卜地 所居地 選定 定着 등이 공통된다는 점에서 무속성을 띠고 형성되어 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三乙那神은 廣壤堂神과 같은 堂神일 것이며 한라산계 또는 송당계의 堂神으로 추단하고 있다. 그 의례도 본래 무속의례로 하였을 것이고, 그 신화도 堂神話로 高良夫 三姓氏族의 조상신본풀이인 동시에 이 조상신을 모셨던 당의 본풀이적 성격의 신화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삼성신화가 서사무가에서 비롯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심 話素들은 제주도의 무속 신화인 堂神본풀이에서 흔히 발견된다. 다음은 삼성신화의 중심 화소인 ① 三神人 地中湧出 話素 ② 三神女 漂着 婚姻 話素 ③ 射矢卜地 所居地 選定 定着 話素와 유사한 堂神話들을 예로 들어 본다.

#### 1) 三神人 地中湧出 話素<sup>12)</sup>

· 松堂 본풀이 : 알송당 고부니모루에서 솟아난 소로소천국[男神]이 강남천자국

11) 대표적인 논의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장주근, “삼성신화 해석의 한 시도”, 『국어국문학』 22, 국어국문학회, 1960.

——, “삼성신화의 형성과 문헌정착과정”, 『탐라문화』 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강정식, “삼성신화의 전승양상”, 『제주문화연구』, 현지김영돈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 1993.

1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636~773.

백모래밭에서 솟아난 백쫓도[女神]를 맞아 부부가 되어 사냥하며 산다.

· 好近里 本郷堂본풀이 : 예비국하로산또[男神]가 할로영산 설명옥 땅에서 을축 삼월 열사흘날 자시에 솟아났다.

· 沙溪里 큰물당본풀이 : 큰물당신은 할로영산 서쪽 어깨에서 솟아나 노루, 사슴을 몰아서 산방산까지 내려와 산방산의 이 골 저 골을 몰아다니다가 당물에 와서 잡아 피를 빼 먹고 좌정할 곳을 정하여 당신이 되었다.

· 舊左邑 本郷堂본풀이 : 이 당신은 천쫓도, 뱃쫓도, 금상님 세위인데, 천쫓도는 할로영산 백록담에서 솟아난 문무점비한 신이고, 뱃쫓도는 서대문 바깥에서 솟아난 임정국 따님 아기로서 용왕국에 들어가 갖가지 주술을 배워 온 女神인데, 천쫓도의 외손녀이다. 한편 금상님은 서울 남산에서 솟아난 무장인데, 역적으로 몰려 제주에 들어와 백쫓도와 결혼하여 당신이 되었다.

· 南元邑 禮村 本郷堂본풀이 : 이 당의 신은 할로영산에서 솟아난 백관님, 강남천 자국에서 솟아난 도원수, 칠오름에서 솟아난 도병서 세 위이다.

신들이 땅속에서 솟아난다는 화소는 이 외에도 서귀포시 甫木, 穡達, 조천읍 北村, 善屹, 구좌읍 杏源, 漢東 堂神본풀이 등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 2) 三神女 漂着 婚姻 話素<sup>13)</sup>

· 칠성본풀이 : 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설룡 부부 사이에 태어난 딸이 중한데 임신한다. 부모가 석함에 담아 동해 바다에 띄어 버리니, 석함은 제주도의 조천읍 함덕리 바닷가에 표착한다. 해녀들이 이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뱀이 여덟 마리가 기어 나왔다. 석함 속에서 칠녀를 뱀의 몸으로 낳고 어머니 자신도 뱀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 뱀들이 바로 칠성신이다.

· 月汀 本郷堂본풀이 : 황토고을 황정승이 절간에 기자하여 딸을 하나 낳았다. 딸은 부모가 정승벼슬 살러 가는데 쫓아가다가 도중에 떨어져 뱀으로 변신한다. 부모

1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419~758.

가 돌아와 뱀으로 변신한 딸을 석함에 담아 바다에 띄어 버린다. 석함은 조천읍 북촌리에 떠올라 오고 김침지 영감이 이를 발견하여 열어보고 모시기 시작하니, 이것이 구좌읍 월정리 본향당 신이다.

· 김녕 케내깃당본풀이 : 송당리 소로 소천국의 여섯째 아들이 불효하므로 석함에 담아 동해 바다에 띄어 버렸다. 석함은 동해 용왕국에 표착하고, 이 아들은 동해용왕국에 들어가 용왕의 막내딸과 결혼한다. 이 사위가 하도 食性이 과다하여 먹일 수 없으므로 용왕은 사위와 딸을 다시 석함에 담아 띄어 버렸다. 석함은 제주도에 표착하고, 부부는 나중에 김녕케내깃당신이 되었다.

· 神豊·下川 本郷堂본풀이 : 송당신 소천국의 셋째 아들 개로육섯도가 불효하므로 석함에 담아 동해 용왕국에 귀양을 보냈다. 석함은 동해 용왕국 황정승집의 산호나무 가지에 걸리고, 개로육섯도는 황정승의 막내딸과 결혼한다. 그런데 개로육섯도가 하도 식성이 과다하여 먹일 수가 없으니, 황정승은 사위와 딸을 다시 석함에 담아 띄어 버렸다. 석함은 제주도에 표착하고, 이 부부는 神豊·下川리의 本郷堂신이 되었다.

· 中文 本郷堂본풀이 : 한라산 서쪽 어깨 소뭇뉘밭에서 3월 대보름날에 9형제가 솟아났는데, 그 중 다섯째 아들이 중문리 당신(중문이하로산)이다. 이 신의 아들이 부모 눈에 거슬리어 석함에 담겨 싱거물로 바다에 띄어 버림을 당했다. 석함은 동해 용왕국 황정승집 산호나무 가지에 걸리고, 아들은 황정승의 막내딸과 결혼한다. 그런데 이 사위가 식성이 과다하여 먹일 수가 없으므로 황정승은 사위와 딸을 석함에 담아 띄어 버렸다. 석함은 다시 싱거물에 떠 오르고, 부부는 중문리 본향당의 부모에게 가서 사죄하고 같이 살다가 불목당에 걸려 나와 불목당신이 되었다.

이 사례들은 제주도의 무속신화에 石函漂着 話素가 일반적임을 보여준다. 또 동해 용왕국 왕녀 등 동해의 想像國의 王女와 도내의 어느 곳에서 湧出한 남신이 혼인한다는 화소가 많음을 말해 준다. 이 화소들을 삼성신화와 비교해 볼 때 이들 이야기에는 男神이 동해의 想像國에 가서 왕녀와 혼인하고 돌아오는데 비해 삼성신화

는 동해 상상국의 왕녀가 표착해 와서 혼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이 차이는 혼인방식에 있어 夫方居住制와 妻方·夫方居住制의 반영의 차이일 뿐, 근본적으로는 같은 관념의 발상으로 보고 있다.<sup>14)</sup> 따라서 삼성신화의 이 삽화도 제주도의 당신 본풀이와 같은 유형의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 3) 射矢卜地 所居地 選定 定着 話素<sup>15)</sup>

· 西歸·東烘 본향당본풀이 : 비씨영감 브르못도가 흥토나라에 다니다가 천하미색을 발견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사위로 들게 되었다. 장가를 들고 보니, 부인은 추색인 고산국이고, 처음 발견한 천하 미색은 그의 처제 지산국임을 알았다. 브르못도는 어느날 처제를 데리고 제주 한라산으로 도망왔다. 이를 안 처 고산국이 곧 뒤쫓아와서 다투기 시작했다. 세 부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뽕개질을 하여 좌정할 곳을 정하여 갈리기로 했다. 큰부인 고산국은 뽕개질을 하니 흥리(동흥리) 안가름 흑담에 돌이 떨어지고, 브르못도는 뽕개질을 하니 서귀포 문섬 한도에 돌이 떨어졌다. 그래서 고산국은 자기 뽕개가 떨어진 곳 서흥리 지경을 차지해 가고, 브르못도와 지산국은 동흥리와 서귀포를 차지해 갔다. 이 후로 이 두 마을은 사이가 나빠 서로 혼인도 하지 않는다.

· 상귀 본향당본풀이 : 옛날 송씨 할머니가 소국에서 제주도 한라산으로 귀양왔는데, 상귀리의 강씨 하르바님이 미인이 왔음을 알고 쫓아갔다. 송씨 할머니는 어승승(어승생약)에서 화살 한 대를 놓으니 상귀리 보로미동산에 떨어지므로 여기에 와서 좌정하려 했는데, 날땃냄새가 나서 좋지 않았다. 다시 뒤로 강씨하르바님이 쫓아오므로 또 화살 한 대를 놓으니, 지금의 당이 있는 황다리케 뒷밭의 돌에 맞았다. 그래서 '살맞은돌'이라 부른다. 송씨할머니는 화살이 떨어진 이 밭에 와서 황다리케의 만년 팽나무 아래에 좌정하여 상귀리 본향당신이 되었다.

· 안덕면 덕수리 광정당본풀이 : 큰형님은 제주시 광양당신이고 둘째는 정의 서낭

14)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p.196.

15) 현용준, 앞의 책. pp.738~775

당신이고, 막내는 대정 광정당신이다. 세 형제가 활을 쏘아 차지할 땅을 가르는데, 큰형님이 활을 쏘니 정의·대정 경계에 떨어져 그 경계를 가르고, 둘째 형이 쏜 화살은 모관(濟州)·정의 경계를 가르고, 막내동생 쏜 화살은 모관·대정 경계를 갈랐다. 그래서 큰 형님은 과양당에 좌정하고, 둘째 형은 서낭당에 좌정하고 막내동생은 광정당에 좌정하여 모관·정의·대정을 각각 차지했다.

· 上倉 하르방당본풀이 : 한라산 서쪽 어깨에서 3월 열사흘날 酉時에 솟아난 9형제 중 여덟째 남판골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8월 열사흘날 한라산을 출발하여 밝은 오름에 오고 보니, 무등이왓(동광리) 당신 황서국서가 억만군병을 거느려 나서고 있었다. 두 신은 활을 쏘아 서로 기능을 다투었다. 황서국서가 화살 하나를 쏘니 백만 군사가 한꺼번에 쓰러졌다. 다시 하나를 쏘아 쓰러져 누운 군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남판골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화살 하나를 쏘면 백만 군사가 한꺼번에 쓰러졌다가 다시 하나를 쏘면 그 군사가 다시 일어나고 자유자재였다. 그래서 황서국서가 항복하여 군졸이 되고 남판골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상창리 통천 당동산에 가 좌정하여 당신이 되었다.

이러한 제주도 내의 무속 당신본풀이와의 비교를 통하여 삼성신화가 무속신화와 같은 유형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성과정을 거친 이 신화는 전승되다가 고려 말 조선 초에 와서 족보나 다른 문헌들에 기록되어 정착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양중해는 이렇게 삼성신화가 기록된 문헌 13종을 화소별로 비교하여 큰 이동이 없음을 밝힌 바 있으며,<sup>16)</sup> 현용준도 이 문헌 기록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高麗史系’와 ‘瀛洲誌系’ 그리고 양자를 절충한 세 부류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三神人 湧出, 所居地 選定 方法 등 대부분은 비슷하나, 三姓의 序次, 三神女의 國籍, 渡來方法, 君臣 序列을 정하는 일 등 몇 가지 話素가 다름을 지적하였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話素의 차이는 신화 해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삼성신화의 문헌자료들을 기록자의 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신화 그 자체

16) 양중해, “삼성신화와 혼인지”, 『국문학보』3,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0.

17)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를 인정하여 신화적인 문맥을 강화하는 입장에서의 기록들과 반대로 신화 그 자체보다도 신화 문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입장에서 기록한 문헌 자료들로 나누어 살핀 경우도 있다.<sup>18)</sup>

그러면 여기서 삼성신화에 대한 대표적인 문헌 기록 자료라고 할 수 있는 『高麗史地理誌』, 『瀛洲誌』, 그리고 『星主高氏家傳』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가. 『高麗史地理誌』에 수록된 삼성신화

高麗史系를 대표하는 문헌자료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실린 문헌으로 『新增東國輿地勝覽』, 李元鎭의 『耽羅誌』, 李衡祥의 『南宦博物』 등이 있다. ‘高麗史 古記云’이라 하여 이들 문헌의 기록들은 『高麗史』의 것을 그대로 옮기거나 약간씩 변형시킨 것으로 같은 계열의 신화라 하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탐라현은 전라도 남쪽 바다에 있다. 古記에 이르기를 태초에 사람이 없더니 세 神人이 땅에서 솟아났다. 한라산의 북녘 기슭에 구멍이 있어 毛興穴이라 하니 이 곳이 그곳이다. 땅이 良乙那라 하고 다음을 高乙那라 하고, 셋째를 夫乙那라 했다. 세 神人은 황량한 들판에서 사냥을 하여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하루는 자줏빛 흙으로 봉해진 나무함이 동쪽 바닷가에 떠밀려 오는 것을 보고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돌함이 있고 붉은 띠를 두르고 자줏빛 옷을 입은 使者가 따라와 있었다. 돌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송아지, 땅아지, 그리고 五穀의 씨가 있었다. 이에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세 따님을 낳으시고 이르시되 서쪽 바다에 있는 산에 神子 세 사람이 誕降하시고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고 하시며 臣에게 명하시어 세 따님을 모시도록 하므로 왔사오니, 마땅히 배필을 삼아서 大業을 이루소서’ 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세 神人은 나이 차이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치니, 良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第一都라 하고, 高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第二都라 했으며, 夫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第三都라 했다. 비로소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니 날로 살림이 풍부해지더라.<sup>19)</sup>

18) 강정식, “삼성신화의 전승양상”, 『제주문화연구』, 현지김영돈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 1993.

## 나. 瀛洲誌系 : 장서각 所藏의 瀛洲誌에 실린 삼성신화

『瀛洲誌』는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異本에 따라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 『長興高氏家乘』 등 高氏家乘에 실린 『瀛洲誌』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毛興穴’이 ‘慕興穴’로, 그 序次가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三乙那 所居地 기록 등이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결국 같은 계열의 것이다. 그 전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瀛洲에는 태초에 사람이 없었다. 홀연히 세 神人이 세상에 솟아나니, 한라산 북녘 기슭에 있는 毛興穴에서 솟아난 것이다. 맏이를 高乙那, 다음을 良乙那, 셋째를 夫乙那라 했다. 그들의 용모는 장대하고 도량은 넓어서 인간 세상에는 없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가죽 옷을 입고 육식을 하면서 항상 사냥을 일삼아 가업을 이루지 못했었다.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 바라보니 자줏빛 흙으로 봉한 나무함이 동해쪽으로 떠나서 머물며 떠나지 않았다. 세 神人이 내려가 이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새알 모양의 옥함이 있고, 자줏빛 옷에 관대를 띤 한 사자가 따라와 있었다. 그 옥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나이는 15,6세요, 용모가 속되지 않아 아리따움이 보통이 아니었고, 각각이 아름답게 장식하여 같이 앉아 있었다. 또 땅아지와 송아지, 五穀의 씨를 가지고 왔는데, 이를 금당의 바닷가에 내려놓았다.

세 神人은 즐거워하여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하늘이 우리 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고 했다. 使者는 재배하고 엎드려 말하기를 ‘나는 동해 碧浪國의 使者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이 세 공주를 낳으시고, 나이가 다 성숙해도 그 배우자를 얻지 못하여 항상 탄식함이 해가 넘는데, 근자에 우리 임금께서 紫雲閣에 올라 서쪽 바다의 기상을 바라보시더니, 자줏빛 기운이 하늘을 이어 상서로운 빛이 서리는 것을 보시고, 神子 세 사람이 絶岳에 내려와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 하시고, 신에게 명하여 세 공주를 모셔 가라 하여 왔사오니, 마땅히 혼례를 올려서 大業을 이루소서’ 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세 神人은 목욕재계하여 하늘에 고하고, 나이 차례로 나누어 결혼하여 물 좋고 기름진 땅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정하니, 高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第一都라 하고, 良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第二都라 했으며 夫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19) 原文 : 耽羅縣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從地聳出(今嶺山北麓 有穴曰 毛興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避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人及諸駒犢五穀種 乃曰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以來 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都 高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始播五穀且牧駒犢 日就富庶(下略)

第三都라 했다. 이로부터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오곡의 씨를 뿌리고 송아지  
망아지를 치니, 날로 살림이 부유해져서 드디어 인간의 세계를 이룩해 놓았다.

그 이후 9백 년이 지난 뒤에 인심이 모두 고씨에게로 돌아갔으므로 고씨를 왕  
으로 삼아 국호를 毛羅라 했다.<sup>20)</sup>

## 다. 『星主高氏家傳』에 수록된 삼성신화

이 문헌은 太宗16년(1416년) 丙申 7월에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鄭以諤가撰한 것  
이다. 三神女가 日本國 王女로 되어 있는 점은 『高麗史』 계통과 유사하며, 일곱 왕  
녀로 그 중 넷은 丹狄國에 가고 나머지 셋은 耽羅로 왔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高  
氏 위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瀛洲誌』 계열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전문은 들면  
다음과 같다.

탐라의 경내에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다. 거기 기이하게 빼어난 산이 있는데 한  
라산이라 한다. 운해가 아득한 곳 위에 완연히 있으니, 그 신령스러운 和氣를 내리  
어 산의 북쪽 毛興穴에 신인을 化生시켰다. 세 사람이 동시에 솟아났는데, 高乙那,  
良乙那, 夫乙那라 하니 高乙那는 곧 고씨의 시조다. 이들은 모두 고기잡이와 사냥  
으로 먹고 살았다. 족보에 이르기를, 일본국 임금이 딸 일곱을 낳았는데, 넷은 단  
적국에 보내니, 단적은 곧 이른바 적적의 종족이다. 나머지 딸 셋에게 명령하여 이  
르기를, ‘서남쪽 바다에 산이 있어서 신인 세 형제를 잉태하여 낳았는데, 나라를  
세우려 하나 배필이 없으니, 너희들은 가서 그들을 섬기라. 후세에 자손이 반드시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다.’ 하고 그들을 목선에다 태우고 五穀의 씨와 마소까지 갖  
추고, 또한 신인으로 하여금 보호하여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탐라의 동쪽 바닷가  
에 이르자, 신자 세 사람이 사냥하러 나왔다가 그들과 만났다. 그들을 호위하고 온  
신인은 붉은 가죽띠를 띠고 자줏빛 장삼을 입었는데,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세 사  
람은 나누어 그들과 장가들고 毛興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수년을 지내는

20) 原文：瀛洲 太初 無人物也 忽有三神人 從地湧出 鎮山北麓 有穴曰毛興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三曰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豁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一日登漢 擎山 望見紫泥封木函 自東海中浮來欲留而不去 三人降臨就開則 內有玉函形如鳥卵 有一冠帶紫 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處子三人 皆年十五六 容姿脫俗 氣韻窈窕 名修飾共坐 且持駒犢五穀之種 出置金塘之岸 三神人 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 使者再拜稽首曰 我東海碧浪國使也 吾王生此三 女 年皆壯盛而求不得所耦 常以遺嘆者歲餘 頃者吾王登紫霄閣 望氣于西溟則 紫氣連空 瑞色葱隴 中有絕岳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 以來 宜用伉儷之禮以成大業 使者忍乘 雲而去 莫知所之 三神二即以潔牲告天以年次分娶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高乙那所居曰第一都 良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自此以後 始成產業 植播五穀且牧駒犢 日就富庶 遂成 人界矣 厥後九百年之後 人心咸歸于高氏 以高爲君 國號毛羅(下略)

동안 산업이 모두 이루어지고 그 후손이 차츰 커졌다.

(중략) 득중(高得宗)이 이오(鄭以吾)에게 이르기를 ‘우리 집안이 毛興穴에서 기초를 세운 이후로 신라로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성주의 작위를 세습하였고 (중략) 그러나 세대의 차서라든가 족보의 기록이 완전하지 못하여 우선 대략을 적어서 부탁한다.’하였다.<sup>21)</sup>

위에 제시한 ‘高麗史系’와 ‘瀛洲誌系’ 그리고 『星主高氏家傳』의 신화 내용 중 화소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삼성신화 話素의 差異表

화소	高麗史系	瀛洲誌系
三姓의 序次	長：良乙那, 次：高乙那, 三：夫乙那	長：高乙那, 次：良乙那, 三：夫乙那
三神女	日本國의 王女	東海碧浪國의 王女
표착한 곳	東海濱：闊雲里(溫坪里)	東海濱：金塘(朝天里)
도래방법	木函 속의 石函에 담겨 떠 오다	목함 속의 鳥卵形 玉函에 담겨 떠오다
所居地	良乙那：一都, 高乙那：二都, 夫乙那：三都	高乙那：一都(一徒里), 良乙那：二都 (山房里), 夫乙那：三都(土山里)
君臣序列		돌을 쏘아 勇力을 시험하여 上·中·下 를 정하고 君·臣·民의 서열을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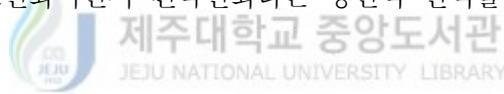
이 『高麗史地理誌』, 『瀛洲誌』, 『星主高氏家傳』 등은 간행 시기가 15세기 초·중반으로 비슷해서 先後 관계를 따져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기록들이 族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때, 문헌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氏族始祖神話로 변화를 강화함으로써 建國神話로서의 위치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21) 原文：耽羅之境 初未嘗有人 其山奇秀曰漢孛宛在雲海渺茫之上 降其神靈和氣 化生神人于山之北毛興穴 三者同時湧出 曰高乙那 良乙那 夫乙那 而高乙那 卽高氏與祖也 俱漁獵以爲食 譜云日本國主 生女七人 遣四女于丹狄國 丹狄卽所謂赤狄之種也 命其女三曰 而南海有山 孕秀生神人 三昆季 將建國無媿偶 若輩可往事之 後世子孫 必繁衍盛多矣 乘之以全木船 兼備五穀牛馬之種 且使神人衛而送之 至耽羅東海之濱 神子三人 出獵遇之 其衛護神人 乃紅鞞紫衫者也 陵空而去 三子分娶之 卜毛興窟近地以居 數年間產業俱就 其後漸大 至高乙那十五世孫 高厚與弟高濤 將朝見新羅 有客星先現 觀臺報云 異邦神人來朝之徵也 既而高厚兄弟渡海 初泊耽津 遂至新羅 王喜待之 以客星先現之故 賜高厚爵星主 且令高濤 出王之勝下 愛如己子 爲王子 賜邑號曰耽羅 蓋自耽津至新羅故也. 羅史載之甚詳…(中略)…得宗謂以吾曰 吾宗肇基毛興之穴 自新羅式至于今世襲星主…(中略)…然世次 譜牒不全 姑以大概爲請…(下略)…永樂十四年 丙申秋七月 日 資憲大夫藝文館大堤學知春秋館 鄭以吾 撰

또 기록되는 한편으로 서사무가로서도 조선시대 중종 무렵까지 구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주목사 李命俊이 正祖 10년(1786년)에 임금께 올린 啓文 속에 나타난다.

(前略) 삼성시조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당을 세우고 향사한 일이 없었으며, 다만 광양당이 있어 무당들이 빌고 굿하는 장소이었는데, 가정 병술년(中宗31년, 1526년)에 목사 李壽童이 비로소 毛興穴 옆에 단을 쌓고 三乙那의 자손으로 하여금 매년 11월에 제향을 올리게 하였습니다.’<sup>22)</sup>

이 기록으로 볼 때 조선 중종 31년(1526)까지는 삼성시조가 광양당에서 무속제의로 모셔졌던 것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삼성신화의 전승양상을 기록화된 문헌신화뿐만 아니라 구전설화 자료를 제시하여 문헌신화와는 다른 계통의 전승으로 보고 문헌신화에서는 삼성 중심의 씨족신화 차원으로 변질되었으나 일반 민중들은 시조신화이면서 건국신화라는 양면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음을 파악하기도 하였다.<sup>23)</sup>



이상에서 논의해 온 삼성신화의 형성과 전승 과정을 정리하여 보면 제주도의 서사무가인 당신본풀이에서 비롯되어 당신을 모시던 세 집단이 이 당신 본풀이를 始祖神話化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세 씨족 세력이 씨족연합에 의하여 부족국가로 확대되면서 建國神話化하는 과정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연합에 의한 部族國家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신라나 고려에 종속되기 시작하면서 건국신화로서의 의미가 축소 약화되는 과정을 밟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세 씨족의 족보에 기록되어 문헌으로 정착되면서 건국신화로서의 성격보다 三姓始祖神話로 인식되어 전승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原文：初無建祠 致祭之事 只有廣壤堂 而爲巫覡 禱賽之場矣 嘉靖丙戌 牧使李壽童 始爲築坵於穴傍 使乙那子孫 每於仲冬 行祭是白如可.

23) 강정식, 앞의 글.

## 2. 삼성신화의 文化的 系統

삼성신화는 제주도의 서사 무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 전승되었다는 주장에서부터 그 類型이 耽羅의 堂神話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沖繩, 臺灣, 南中國, 東南亞 등 남방계 신화 요소가 유입되어 결합 융해되고 새로운 제주적인 신화로 創出되었다는 남방문화의 반영으로 보는 주장<sup>24)</sup>이 제기된 바 있다. 남방계 문화 요소뿐만 아니라 高·良·夫 三姓을 기능별로 고찰할 때 고구려, 신라, 가야와 친연성이 있음을 들어 북방계 문화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견해<sup>25)</sup>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용준은 삼성신화를 중심 화소별로 나누어 남방계 문화의 영향임을 논증하였다. 그는 地中湧出, 箱舟漂着, 身分序列 話素를 중심으로 남방계 신화 요소가 유입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화소별로 문화적 계통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地中湧出 話素



시조가 땅속에서 솟아났다는 화소는 제주의 삼성신화를 제외하면 한국이나 그 이북 지방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 이 地中湧出 화소가 나타나는 곳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일본의 구주 남부에 그 흔적이 보이고, 沖繩, 臺灣 쪽으로 가면 꽤 많이 발견되고 있다. 실례를 보면,

九州 : 옛날 神功皇后가 우시까미네에서 활을 쏘았더니 화살을 맞은 땅 속에서 이상한 검은 놈의 머리가 내다보이므로 활 끝으로 땅을 파헤쳐 보았더니 남녀 각 한 사람이 나왔다. 이를 神人이라 해서 우대했는데, 그 자손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들은 頭黑(가시라구로)라 부르니, 이는 처음 땅에서 파내어 질 때 검은 머리가 나왔다 해서 그렇게 이름지어진 것이다.<sup>26)</sup>

24)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25) 허남춘, “삼성신화 일고찰”,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현승환,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문화계통”, 『제주문화연구』, 제주문화, 1993.

26)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p.202에서 재인용.

沖繩 宮古諸島 始祖神話 : 상고에 고이쓰누(古意角)라는 남신이 천신의 명을 받아 하늘에서 土砂를 가지고 내려와서 섬을 만들고, 고이다마(姑依王)라는 하늘의 여신을 데려다 부부가 되어 아들 스타데이(宗達)神과 딸 요시다마(嘉玉)神을 낳아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이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男女神이 나타나니,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땅속에서 化生하여 부모가 없다’고 하므로 遊樂神이라 했다. 이들 중 남신은 홍염으로 몸을 두르고 있었으므로 기소오(木莊)神이라 하고,女神은 靑葉으로 몸을 두르고 있었으므로 후사소오(草莊)神이라 이름 했다. 고이쓰누(古意角), 고이다마(姑依王) 두 신은 매우 기뻐해서 후사소오(草莊)神을 스타데이(宗達)神과 결혼시키고 기소오(木莊)神을 요시다마(嘉玉)神과 결혼시켰는데, 이 두 부부의 아들과 딸이 서로 결혼하여 자손이 번창하니, 이들이 宮古島의 시조인 것이다.<sup>27)</sup>

沖繩 八重山諸島 始祖神話 : ‘아망神’이 日神의 명을 받아 하늘의 七色 다리 위에서 바다에 土石을 던져 넣고 槍矛로 휘저어 섬을 만들었다. 이것이 八重山の 섬들이다. 섬에는 阿檀나무가 무성할 뿐, 사람도 동물도 없었다. 그 후 신이 사람의 씨를 阿檀나무 숲속의 땅 구멍에 내려 보내니, 그 구멍에서 남녀 두 사람이 출현했다. 그들은 남녀의 성관계에 대하여 아직 모르고 있었으므로 신은 두 사람을 못가에 세우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못을 돌도록 했다. 못가를 돌다가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포옹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부부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뒤에 삼남이 녀를 낳고 八重山の 시조가 되었다.<sup>28)</sup>

臺灣 다이알 汶水蕃 : 태고적 ‘과아팍과아’라는 곳에 두 개의 구멍이 있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 한 구멍으로부터 남자가 나오고, 다른 한 구멍으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두 사람은 각기 자기 혼자뿐인 줄 알고 먹을 것을 구해 산중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만났다. 두 사람은 같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남자가 여자의 사타구니에 오목한 곳이 있음을 발견했다. 여자는 ‘이것은 바위 속에서 나올 때 입은 상처이니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며칠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고, 끝내는 교접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자손이 번식해서 계류를 따라 사방으로 이주해 갔다.<sup>29)</sup>

위 예에서 ‘九州’이야기는 神人 남녀가 땅속에서 출현했다는 화소의 잔영을 보여 주며, ‘沖繩’이나 ‘臺灣’의 시조신화에서는 男女 二神이 地中湧出 話素가 분명히 나

27) 현용준, 앞의 책(p.203)에서 재인용.

28) 현용준, 앞의 책(p.203)에서 재인용.

29) 현용준, 앞의 책(p.204)에서 재인용.

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시조신의 地中出現 화소는 동남아 일대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고문헌으로 『後漢書』의 ‘南蠻傳’에도 나타나 있다. 이처럼 삼성신화의 지중용출 화소가 沖繩, 남중국 등 동남아 일대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남방계 문화 요소의 계통임을 보여 준다. 그런데 삼성신화의 이 地中湧出神은 남자 三神人인데 반해 남방계의 것은 男女 二神으로 그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요소는 북방계 문화 요소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地中湧出 話素를 북방계 신화 요소로 보는 시각은 허남춘이 주장하고<sup>30)</sup> 현승환은 동의<sup>31)</sup> 한 바 있다. 허남춘은 신화적 문맥으로 볼 때 이 화소가 地母神 信仰의 반영으로 보고 북방계 신화 요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암시했다. 三神人이 솟아난 毛興穴을 강신 장소가 아닌 降神 儀禮를 거행하던 祭儀場所로 보는 견해는 삼성신화가 대지의 생산력을 토대로 한 地母神 信仰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한 알의 씨앗이 대지에서 죽지만 이것이 풍요를 이룬다는 穀神 復活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農耕文化의 요소가 강한데 이는 중국의 稻作文化의 유입을 생각하게 되며 북방문화의 영향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再生復活 화소는 朱蒙이 기린마를 타고 굴 속에 들어갔다가 땅 속에서 조천석으로 나와 승천했다는 사실과 단국신화에서 꿈이 입굴 후 여인으로 재생하는 사실은 부활의 신화적 요소로 볼 때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地中湧出 話素가 檀君神話나 朱蒙神話라는 北方係 신화 요소와 親緣性이 있음을 말해 준다.

## (2) 箱舟漂着 話素

箱舟漂着 話素는 제주도의 삼성신화 뿐만 아니라 駕洛國 水路王妃 許皇后의 漂着, 新羅 脫解王의 漂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성신화의 三神女는 東海 碧浪國 (日本國)에서 木函을 타고 자줏빛 옷을 입은 사자와 함께 건너 왔다. 水路王妃 許皇后는 阿彌陀國에서 비단 돛을 단 화려한 배를 타서 건너 온 것으로 되어 있으며, 脫

30) 허남춘, 앞의 글.

31) 현승환, 앞의 글.

解王은 용성국에서 赤龍이 호위하는 배를 타서 건너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類型的 전승으로는 일본 對馬島, 壹岐島 등 九州 일대에 많이 분포되고 있으며, 沖繩, 대만 등 동남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沖繩 宮古島 大浦 部落의 始祖神話의 예를 들면,

‘우부라다시’는 男神이고 ‘마지루우마’는 女神인데, 남매였다고 전한다. 두 신은 계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눈에 거슬리므로 그의 부친이 상자를 만들어 남매를 담아 바다에 띄어 버렸다. 얼마 가지 않아 상자는 大浦灣에 표착했다. 두 신이 바깥에 나와 보니 물이 흘렀던 자국이 보였다. 그 자국을 따라 올라 가니 까마귀가 몸을 적시고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두 신은 여기에 물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사방을 찾아보니, 현재 부락의 입구에 있는 ‘마에에’라는 우물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정착했는데, 이것이 大浦部落의 始祖라고 전한다. … 이웃 마을에서는 大浦는 唐나라에서 흘러들어온 자손이라고 전한다.<sup>32)</sup>

이 이야기는 계모의 버림을 받아 漂着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堂神話에 많이 나오는 불효한 아들을 石函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리는 化石와 매우 흡사하다.

다음에 臺灣 高砂族의 예를 들면,

臺灣 高砂族 푸마족 知本社의 시조 : 대 속에서 출생한 시조 ‘파구마라이’의 玄孫에 ‘바고라시’(男), ‘가브유라시’(女)가 있었다. 이 남매가 부부가 되어 8남매를 낳았는데 둘째 딸을 ‘가디가디’라 불렀다. ‘가디가디’가 성장하여 사생아 ‘루구라우’를 낳았는데, ‘루구라우’는 절세미인이어서 그 이름이 원근에 퍼졌다. 그녀는 혼인하면 남편이 죽고, 죽고 하여 세 번이나 개가 했다. 어머니는 딸이 육체적인 큰 결함이 있음을 알고, 살려 두었다간 세상 사람들이 알아 큰 수치를 당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상자에 딸을 담아 卑南溪에 띄워 버렸다. 상자는 흘러서 바다에 가고 북풍을 받아 知本社에 표착했다. 知本社의 蕃人 ‘파롯드’란 사람이 사슴 사냥을 다니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고 두목에게 알렸다. 두목 ‘시가지가우’가 와서 상자를 열어 보니, 절세미인이 그 속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미인이 표착해 온 내력을 알게 되었다. 蕃人들은 옛날부터 음부에 이(齒)가 있는 여인이 있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그렇지 않은가를 캐어 물으니 ‘루구라우’가 그것을 수궁했다. 이에 그 음부의 이를 제거한 후 ‘루구라우’는 두목의 처가 되었다.<sup>33)</sup>

32) 현용준, 앞의 책(p.207)에서 재인용.

33) 현용준, 앞의 책(pp.208~209)에서 재인용.

箱舟漂着 話素는 한국의 남부, 대마도, 沖繩, 대만 등 동남아 일대에 분포해 있다. 타는 배는 木函, 배, 함지박, 뗏목 등이고, 漂着하는 神人은 여성이 일반이다. 이러한 사실은 삼성신화의 三神女가 石函에 담겨 漂着했다는 화소가 동남아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箱舟漂着型 話素와 유사한 것이다. 이것은 이 箱舟漂着 話素도 남방계 신화 요소의 영향임을 알게 한다.

### (3) 三神人 身分序列 話素

삼성신화의 身分序列 話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三神人이 地中에서 出現할 때 長·次·三으로 구분하여 良乙那, 高乙那, 夫乙那(高麗史地里地) 또는 高乙那, 良乙那, 夫乙那(瀛州誌)로 기록되어 있는 점과 둘째는 三神人이 所居地를 정할 때 돌을 쏘아 勇力을 시험하고 上·中·下를 정하여 고을나가 君長이 되고, 양을나가 臣下가 되고, 부을나가 民이 되었다는 기록이다. 이처럼 활을 쏘아 서열을 정하는 화소는 제주도의 堂神話에 흔히 나오는 화소다. 이와 비슷한 화소가 경상북도에서 발견된 바가 있다.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에는 ‘골매기 하씨할배, 최씨할배, 양씨할배’의 三神位가 있다. 그 중에 하씨 조상으로 말하면 임진왜란 또는 世祖篡位 때에 이 곳에 피난와서 처음으로 이 마을을 이룩하고 落鄉 一代祖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씨측에서는 ‘최씨할배’가 ‘하씨할배’보다 더 먼저 여기 와서 정착했으며, 처음으로 이 마을을 이룩했다고 우겨서 때로는 河·崔·梁의 순위가 崔·河·梁으로 고집되기도 했다.<sup>34)</sup>

이 골매기는 그 세 신이 三姓의 시조로 되어 있고, 그 서열의 上下를 다투는 것이 삼성신화와 통한다. 또 三神의 序列話素는 신라의 박혁거세·석탈해·김알지의 三人神話의 문제와도 통하며, 三神人이 활쏘기 경쟁으로써 序列을 정하는 것은 주몽이 비류국 송양과 재주를 겨루는 것과 비슷하다. 이 화소는 하늘의 뜻을 묻고 활로써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라는 의미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삼성신화의 身分序列 話素는

34) 장주근,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75, pp.37~38.

신라의 건국신화나 고구려 건국신화인 주몽신화와 친연성이 있음이 드러나며 이는 身分序列 話素가 북방계 신화의 영향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이 三神 序列話素가 沖繩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琉球王朝의 創世神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옛날 이 나라의 시초, 아직 사람이 없을 때, 하늘에서 남녀 두 사람이 내려왔다. 남자를 '시네리큐'라 하고 여자를 '아미마큐'라 했다. 두 사람이 집을 나란히 짓고 살았다. 이 때는 이 섬이 아직 적어서 물결이 칠 적마다 출렁거리고 있었다. 여기에 '다시가'라는 나무를 심으니 산의 모습이 되고, 다음에 '시큐우'라는 풀을 심고 阿檀나무를 심으니 점차 나라 땅의 모습이 갖추어져 갔다. 두 사람은 陰陽和음이 없었지마는 집이 나란히 있었던 고로 왕래하는 바람을 인연으로 해서 여자는 잉태하고 드디어 삼남을 낳았다. 첫째는 君主의 시초가 되고, 둘째는 노로(司祭者)의 시초가 되고, 셋째는 士民의 시초가 되었다.<sup>35)</sup>

이 신화는 三神人이 君 · 諸侯 · 民 등 계층의 분화와 身分序列 話素가 삼성신화와 유사하다. 이 외에도 「後漢書·南蠻傳」의 苗族의 始祖神話에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巴郡과 南郡의 蠻人에는 본래 五姓이 있었으니, 巴氏 · 樊氏 · 譚氏 · 相氏 · 鄭氏가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武落의 鍾離山에서 나왔다. 그 산에는 붉은 구멍과 검은 구멍, 두 구멍이 있는데, 巴氏의 아들은 붉은 구멍에서 나오고, 나머지 네 성의 아들은 다 검은 구멍에서 나온 것이다. 아직 임금이 없을 때 다 귀신을 섬기고 돌구멍에 칼을 함께 던져 명중시키니 다들 감탄했다. 또 각자가 土船을 타고 가라앉지 않은 자가 있으면 임금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경쟁했는데, 나머지 성씨는 다 가라앉고 巴氏만이 홀로 떠 있으므로 함께 그를 받들어 세우니 임금이 되었다.<sup>36)</sup>

이 신화에서도 구멍에서 솟아난 다섯 성씨 시조가 칼로 돌 쏘기, 土船 타기 등 경쟁을 통하여 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임금을 정하는 서열 결정 방식이 삼성신화의 序列話素와 유사하다. 이처럼 삼성신화의 三神人 身分序列 話素가 한국, 沖繩, 남중국

35) 현용준, 앞의 책(p.211)에서 재인용.

36) 현용준, 앞의 책(p.206)에서 재인용.

등에 분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話素는 남방계 신화 요소와 북방계 신화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삼성신화의 문화적 계통을 중심 화소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종합해 보면 地中湧出, 身分序列 화소는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 문화 복합 형태를 띠고 있으며, 箱舟漂着 화소는 남방계 문화 요소의 영향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삼성신화는 耽羅의 堂神話에서 출발하여 문화적으로는 남방계 문화 요소와 북방계 문화 요소가 유입되어 결합되면서 제주적인 새로운 삼성신화로 창출되어 왔다고 하겠다.

### 3. 삼성신화의 文化 背景

일반적으로 神話는 사회 문화의 反映이라고 볼 때, 삼성신화가 제주의 堂神話에서 독자적으로 形成되어 전승과정에 남방계 혹은 북방계 문화가 유입되어 새롭게 創出되면서 전승되어 왔다면 그 과정에 제주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앞서 신화의 系統에서 살핀 주요 화소들을 중심으로 삼성신화의 文化 背景을 살피기로 한다.

첫째, 地中湧出 話素 : 三神人이 땅에서 솟아나 狩獵生活하며 ‘皮衣肉食’ 하였다.

둘째, 箱舟漂着 話素 : 三神人이 五穀의 씨와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온 三神女와 혼인하였다.

셋째, 所居地 選定 話素 : 三神人은 활을 쏘아 居處할 땅을 정하고, 農牧生活로 정착하였다.

첫째 地中湧出 話素가 의미하는 문화 배경으로는, 땅에서 三神人이 솟아나고, 각각 세 지역으로 分居 정착하였다는 표현에는 그 사회가 三部組織 사회임을 말해주는

다. 그 계층도 君·臣·民의 종적 체계로 三分되어 있어 三氏族이 세 지역에 分居하여 하나의 부족국가를 형성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신화는 씨족중심사회에서 三部組織을 갖춘 부족사회로 넘어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또 三神人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화소는 大地를 母性原理로 파악하고, 地母神信仰이 밀받침된 것으로 본다. 즉 三神人의 地中湧出은 대지의 품 속에서 생명이 산출된다는 원초적 사유의 반영으로 대지의 생식력을 토대로 한 地母神信仰이 내재해 있다. 三神人이 지중에서 솟아났다는 것은 곡식이 땅에서 자라 나오는 상징이거나 지모신이 神人을 출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지중용출은 탄생의 의미를 가지면서 곡신 부활의 의미를 갖는다. 즉 삼신인은 지중의 埋沒과 지상으로의 湧出을 보임으로써 祖上神, 生産神으로 崇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箱舟漂着 話素가 지닌 문화 배경에 대해 수렵하던 三神人이 五穀의 씨와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온 三神女와 혼인하는 것은 狩獵·採取生産形態에서 農牧生産形態로 넘어오는 단계로 보아, 수렵문화에서 농경문화로 넘어가는 단계의 문화 형태로 보았다. 그리고 외부의 여인과 혼인하고 있는 점은 外婚制를, 三神人과 三神女가 나이 차례로 혼인하고 있음은 一夫一妻制를 말해주며, 三神女가 스스로 三神人에게 와서 혼인하는 것은 夫方居住婚姻形態의 사회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 또 바다 건너 상상의 나라에서 三神女가 五穀의 씨와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왔다는 화소는 狩獵의 貧困에서 벗어나 풍요를 이룩하는 귀중한 물건으로 이 상상의 나라는 풍요를 주는 樂土라는 觀念이 담겨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話素에는 海洋樂土의 他界信仰을 배경으로 형성된 신화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37)</sup>

또 허남춘은 삼국의 건국 신화는 이주민 세력의 남자와 토착세력의 여자가 결합한 부족연맹 사회의 반영이라면, 반도 남부에 위치한 가야의 許皇后 渡來 신화와 삼성신화는 토착민 지배세력의 남자와 이주민 여인이 결합한 부족 연맹 사회의 반영이라고 주장하였다. 三神人과 三神女는 土着集團과 移住民(渡來人) 集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토착집단인 삼신인은 穴居하면서 사냥을 통해 가죽옷을 입었을 것이

37) 현용준, 앞의 책, pp.212~213.

고, 여기에 이주민 집단인 三神女는 오곡을 가지고 도래하여 토착집단의 생활방식을 바꾸는 계기를 제공했을 것이다. 이것은 토착부족이 도래부족과의 결합으로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sup>38)</sup>

이청규도 삼성신화의 내용은 수렵 중심 사회에서 점진적으로 농경중심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며, 이는 기원전 1세기를 전 후한 시기에 기존 공렬토기 집단에 점토토기 집단이 등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고고학적 측면에서 주장하였다.<sup>39)</sup>

셋째, 所居地 選定 話素는 三神人이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정하고 있다. 이 화소는 제주의 堂神話에도 자주 나온다. 이 射矢卜地하여 所居地를 選定하는 화소는 長·次·三의 세 계층을 사회공간과 사회 질서의 인식 양상으로 파악하여 사회 질서 구조의 三分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삼신인을 長·次·三으로 序列化시킨 것은 부족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부계혈통 집단의 세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 이 화소를 평등사회의 경쟁원칙을 발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長·次·三의 서열화를 위계적인 서열 우위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三神人이 세 범주의 신분으로 나누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곧 尊貴와 卑賤의 상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외래 문물을 수용하고 조화시켜 좀더 나은 문화를 이루는 상황이거나 신화에 나타난 세계관을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하겠다.

38) 허남춘,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4. p.146.

39) 이청규, “삼성신화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탐라문화』 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4.

### Ⅲ. 三姓神話의 儀禮的 性格

#### 1. 巫俗式 儀禮

##### 1) 당곳의 樣相

당곳은 마을민 전체 또는 대부분의 복리를 위하여 마을 사람들이 심방 [巫堂] 과 함께 堂祭日에 堂에서 벌이는 집단적인 무식 의례이다. 남성보다는 여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속식 마을제로 ‘마을굿’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무식의례를 행하는 제장을 통칭하여 ‘당’이라 하거나 또는 ‘할망당’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한 마을에 남성신 ‘당’과 여성신 ‘당’이 별도로 있을 때는 ‘하르방당(할아비당)’, ‘할망당(할미당)’이라 불러 엄밀히 구분한다. 이 당들은 단지 제장으로서의 의의뿐 아니라, 그 안에 신격이 상주하는 신성처라는 점이 유식제단과 다르다. 마을마다 당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각 당마다 당신의 직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당들을 당신의 직능별로 분류하면 ① 본향당, ② 칠일당, ③ 팔일당, ④ 해신당, ⑤ 기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본향당을 중심으로 살펴기로 한다.

본향당이란 마을을 수호하여 주는 신의 주처임과 동시에 祭場이다. 심방들이 창하는 무가에서 이 신의 직능을 말하는 사설을 보면 대개 “낳는 날은 생산, 죽는 날은 물고(物故), 호적(戶籍), 장적(帳籍) 차지한 한집”이라 한다. ‘한집’이란 당신을 일컫는 말이니, 이 신들은 출생, 사망, 호적, 장적 등 마을 주민의 제반사를 관장하는 신임을 말해 준다. 또 이 신을 일컬을 때는 ‘본향한집’ 또는 ‘토지관한집(土地官 또는 土主官)’이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신은 마을 전체의 자연 인문사상을 수호해 주는 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이 본향당은 각 마을마다 반드시 하나가 있게 마련이다.

이들 본향당에는 크든 작든, 1년에 몇 번씩 무의가 행해진다. 크게 하는 무의를 ‘당굿’이라 하고, 작게 하는 무의는 보통 ‘비념[祈願]’이라 한다. ‘굿’이란 전 巫樂器

즉 북, 장고, 징, 설채, 요령 등을 모두 사용하고, 주요 제차는 首巫, 小巫 합쳐 4인 내지 5인의 심방이 최소한 있어야 하며, 보통 아침에서 저녁까지 종일 걸린다. 이 당굿 때에는 온 동네의 여인들이 가호마다 제물을 차려 參與하며 또 남자들도 모이는 일이 있다.

‘비뉘’이란 굿처럼 큰 규모가 아니라, 심방 한 사람이 요령만을 흔들며 축원하는 무의이다. 이는 온 동네가 모여 공동으로 의례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개별적으로 심방에 의뢰하여 당에 가서 한 시간 내외의 간단한 축원을 하는 것이다.

무의를 하는 날짜를 제일이라 한다. 제일은 당에 따라 定日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不定日로 택일을 하여 하는 곳도 있다. 그 제일은 날짜와 제명이 당에 따라 일정치 않으나, 대개는 4대 제일이라 하여 연 4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일반적인 4대 제의를 보면 ① 정월의 신과세제 ② 2월의 영등제 ③ 7월의 마블림제 ④ 10월의 시만국대제이다. 다음은 정월의 신과세제를 중심으로 당굿의 양상을 살펴본다.

‘신과세제’는 ‘신과세’ ‘과세’ ‘과세문안’ 등으로 불리는 제의로서 本郷堂마다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의 어느 날을 제일로 삼고 있다.

이 제의는 산 사람에게 세배를 하듯, 마을의 각 가호에서는 으레 지난해의 감사와 새해의 행운을 빌기 위하여 제물을 차리고 參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의 준비는 물론 여성들이 맡지만 남성들이 제관(三獻官)을 선출하고 제의를 관리하는 마을도 꽤 있다.

당굿날 아침 당내의 제단에 제물을 진설하면 각 가호에서는 각자 자기 집안 축원용 제물을 따로 차려 들고 당에 모여 와 제단 앞에 옹기종기 벌려 놓는다. 그래서 굿이 시작되는데 그 주요 祭次는 보통 ‘삼석울림→괘문열림→열명→당굿→괘문음’의 순서로 진행된다.<sup>40)</sup>

40)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pp.82~88의 내용을 인용하여 당굿의 제차를 제시하였음.

### 가. 삼석올림

‘삼석올림’은 연물(악기)를 세 번 쳐서 굿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삼천전제석궁의 신들에게 ‘지금부터 굿을 시작합니다’ 하고 알리는 請神儀禮다.

### 나. 궤문열림

‘궤문열림’의 궤는 神衣을 보관하는 곳으로 보통 제단 위에 있는 작은 집이나 상자를 말하기도 하고, 제단 위, 아래 또는 옆에 세 개의 구멍[神穴]을 만들어 납작한 돌을 덮어 둔 곳을 말한다. 궤문을 여는 것은 납작한 돌을 열어, 神이 이 구멍을 통하여 나오게 하는 것이다. 심방은 ‘상궤문도 열려줍서, 중궤문도 열려줍서, 하궤문도 열려줍서’하며唱하여 궤문을 여는 것이 ‘궤문열림’의 祭次다.

### 다. 열명[예명올림]

열명[예명올림]은 단골 신앙민들이 차려 온 祭物을 祭場에 陳設하고, 그 해의 햇곡식을 폐백과 함께 집안 식구의 이름을 적어 심방에게 주면, 심방은 그 이름을 하나하나 신에게 아뢰어 ‘아무개 집안에서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사실 심방이 당굿을 치는 날 단골 신앙민들에게 해 주는 일은 ‘열명’과 ‘산받음’이며, 집안마다 산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때문에 ‘열명’과 ‘산받음’은 굿의 틈틈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여 굿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심방은 집집마다 신에게 왔다는 것을 알리는 ‘열명’을 한 뒤, 신에게 한 해의 무사 안녕을 빌면서, 그 해의 운세를 점치는 ‘산받음’을 하여 신으로부터 그 해의 운세를 듣고 집안에 전한다. 집안 식구 중 厄運이 긴 아이가 있으면 ‘액막이’를 하여 厄을 막고, 단골들은 차린 제물을 신의 집[神穴]에 묻는 ‘궤묻음’을 하여 당에 간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 라. 당굿

당굿은 본향당신을 청하여 마을의 모든 집안의 평안과 한 해의 풍등을 빌고, 마을의 운세를 점치는 ‘도산받음’을 하고, 마을의 厄運을 막는 ‘도액막음’을 한 뒤, 신을

대접하여 보내는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당국은 ‘① 초감제 ② 분향듬 ③ 추물공연 ④ 석살림(군웅놀림) ⑤ 마을 도산받음 ⑥ 집안 각산받음 ⑦ 마을 도액막음 ⑧ 집안 액막음 ⑨ 산신놀이 ⑩ 도진’으로 끝난다.

① ‘초감제’는 곳의 맨 처음에 하는 請神儀禮로, 심방은 ‘열명중사관이 곳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는 신칼과 요령을 들고 춤을 추고 사방에 절 三拜하여 올린 후 다음 순서에 따라 곳을 진행해 나간다. ‘초감제’의 진행은 ‘㉠ 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마을연유담음→㉣ 군문열림→㉤ 산받음→㉥ 분부사림→㉦ 주잔권잔→㉧ 새드림’으로 진행된다.

㉠ 베포도업침은 우주의 질서와 천지개벽, 그리고 인간이 생겨나 세상을 경영하게 된 이치를 설명하며, 天·地·人을 ‘굽 가르는(구분해 나가는)’ 儀禮다.

㉡ 날과국섬김은 곳을 하는 날짜와 장소를 설명하는 제차다. ‘베포도업침’에서 神과 人間이 宇宙에 생겨나게 된 天地開闢과 人類倉生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통시적으로 설명했다면, ‘날과국섬김’에서는 지금 곳을 진행하고 있는 時間과 곳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장소의 설명은 주변정세와 곳관의 관계를 연결지워 강남천자국-일본주년국-우리나라 해동조선국-다섯 섬 중 제일의 제주도-시·군·면-어느 마을에서 곳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마을연유담음은 ‘왜 곳을 하게 되었는가?’하는 사연을 신에게 아뢰는 대목이다. 마을에서 분향당신을 모시며 살아온 역사와 수난, 그리고 마을에서 생겨났던 불의의 사고를 설명하면서 올해에는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하고, 농사도 잘 되게 하여 家家戶戶에 걱정할 일을 없게 해 달라고 祈願하고, ‘그러한 연유로 곳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연유를 담는’ 대목이다.

㉣ 군문열림은 하늘에 있는 ‘神宮의 門[군문]’을 열어, 신이 인간의 기원에 감응하고, 인간의 세계로 내려올 의사 여부를 점을 치고 확인하는 下降儀式이다. 평상시 신과 인간은 수직적 종속관계로 단혀 있다. 신이 인간에게 내릴 의사를 점치는 것은 단혀 있는 문을 여는 것이며, 신과 인간의 문제를 풀어 줄 의사를 보일 때 신궁의

문은 열리는 것이며, 이 때 신과 인간의 수직적 종속관계가 깨어지고 신인합일의 신명을 공유하게 된다.

당곳의 군문열림은 ‘神堂·本堂의 문을 여는 것’으로 마을의 生産·物故·戶籍·帳籍을 차지한 本郷堂神의 下降의 뜻을 묻는 것이다. 신의 뜻을 물을 때는 보통 점을 쳐서 확인하는데, 심방은 심방을 신의 안내역으로 하는 움직임으로 신의 하강하는 모습과 신의 의사를 보여 주려 하며, 신을 안내하는 듯한 춤, 신의 움직임, 곧 신명을 나타내는 격정적인 춤을 춘다. 또 신의 의사를 점칠 때는 앉아서 가장 정중하게 보이는 절을 하며, 감상기를 양손에 잡고 세워 흔들며 고개를 숙였다가 바로 앉아 요령을 흔들어 신에게 염원하는 바를 알리고, 신칼을 돌려 점을 친다. ‘삼시왕 군문 괘(신칼점에서 신칼의 날이 마주하는 괘)’가 나오지 않으면, 더욱 격렬하게 춤을 추고 더욱 정중하게 절을 하는 동작을 반복하여 ‘삼시왕 군문 괘’가 나오면 손바닥을 꺾었다 폈다하는 답례춤을 추고 절을 한 다음, 신칼점과 산판점을 하여 신의 뜻을 묻고 점괘로 신의 뜻을 알아낸다.

㉞ 산받음은 군문을 연 뒤에 신칼점과 산판점으로 신의 뜻을 묻고 신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다. 점을 쳐서 신의 뜻을 알아내는 것을 ‘산 받는다’고 한다.

㉟ 분부사림은 ‘산 받아서’ 알아낸 신의 뜻을 심방의 입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 곧 ‘신의 분부 말씀을 인간에게 사린다’는 것이다. 이 때 심방은 신의 역할을 하여, 신처럼 인간에게 말을 한다. 인간이 신에게 간절히 염원하는 ‘연유’를 듣고 분향당신이 마을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를 풀어줄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신의 말을 심방의 입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㊱ 주잔권잔은 굿 한자리가 끝날 때마다 신을 따라온 잡신과 군병들에게 술을 대접하는 것으로 심방이 산을 받아 분부를 사릴 때, 소미(小巫)는 상에 놓인 세 개의 술잔에 술을 부어 댓잎으로 적셔 흩뿌린다.

㊲ 새드림은 초감제의 군문열림이 끝나고, 분향당신을 청해 오는, ‘오리정신청례’를 하기 전에, 굿판을 깨끗하게 씻어 부정을 없애는 淨化儀禮로서 물을 뿌려 ‘새(邪)를 쫓고’ 굿판을 정화하는 것이다.

초감제가 끝나면, 소미(小巫)가 등장하여 정화수 사발을 들고 天皇·地皇·人皇의 새(邪)를 쫓는다. 그리고 푸다시를 하여 본주나 단골들의 몸에 깃든 새(邪·病·不淨)도 내쫓아 신을 맞이할 곳판과 단골들의 몸을 정화하는 것이다.

② ‘본향듬’은 본향당신을 맞이하는 작은 ‘맞이굿’이다. 심방이 신청례를 하여 五里 밖까지 나가서 신을 맞이하면, 본향당신은 사냥하는 모습으로 위용을 곳판에 보이며 들어 온다. 본향당신을 맞이하여 좌정시킨 뒤에 삼헌관이 燒紙를 살라 祈願하고 절을 하며, 신들을 모두 자리에 앉히는 정대우까지를 ‘본향듬’이라 한다. ‘본향듬’의 제차는 ‘㉠ 신청례→㉡ 본향청함(당본풀이)→㉢ 우봉지주잔→㉣ 본향드리→㉤ 소지사름→㉥ 정대우→㉦ 삼헌관 헌작배례→㉧ 음복지주잔→㉨ 군웅놀림’의 순서로 진행된다.

㉠ 신청례는 신을 오리 밖까지 가서 정중히 맞이해 오는 請神儀禮로 ‘오리정신청례’라 한다. 심방은 신칼과 산대를 들고 산대에 쌀을 담아 신을 모셔들이는 춤을 추면서, 산대에 있는 쌀을 신칼로 훌뿌린다. 이러한 행위는 본향당신을 따라오는 本堂軍卒, 神堂軍卒 등 軍兵과 雜鬼, 다시 말하면 배고픈 신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쌀을 훌뿌려 하위군졸들이 본향당신을 따라 들어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심방이 모셔들이고 있는 것은 본향당신을 비롯하여 많은 하위 신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신을 모셔들이는 신청례에서 심방의 행위는 반복적이며 길다. 심방은 신청례의 연물가락에 맞춰 堂入口 쪽으로 가서는 감상기와 요령을 흔들다가 신칼로 산대에 있는 쌀을 몇 번 훌뿌리고 다시 제상 앞으로 와서 쌀을 몇 번 뿌리는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 본향청함은 당신을 맞이해 들이는 과정이다. 제차는 ‘당본풀이→우봉지주잔→본향드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당본풀이’는 당신의 내력담이다. 보통 당신은 사냥을 하던 설촌 조상으로 묘사된다. 본풀이가 끝나면 심방은 ‘우봉지주잔’을 당 밖으로 던진다.

㉢ 우봉지주잔은 당신을 따라온 신당 군졸과 배고픈 군병들에게 술과 떡을 던져주는 것이다. 술병 위에 마개처럼 천을 감은 우봉지주잔을 당 밖 올래로 던져 올래 밖까지 당신이 당도 했음을 급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이어서 본향드리가 된다.

㉣ 본향드리는 당신이 곳판에 들이닥치는 대목이다. 堂神의 登場을 극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본향당신을 청해 들이는 것은 본향당신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므로 심방은 팔에 화살통 같이 ‘풀찍거리’라고 하는 천을 묶고, 감상기를 활로, 신칼을 화살로 잡고 힘센 장수의 위용과 사냥하던 역세고 무서운 모습을 떠올리고, 한라산을 오르내리며 사냥하던 堂神의 역할을 함으로써 당신이 굿판에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표현한다.

㉞ 소지사름은 백지를 태워 올리는 ‘불꽃의 의식’이며 ‘祈願儀禮’이다. 마을의 유지나 상단골 되는 분들이 나와 편지처럼 접은 ‘白燒紙’를 살라 ‘말 못할 사연과 축원과 정을 적은 백소지 권장’을 신에게 바친다.

㉟ 정대우는 본향당신 이하 모든 신들이 자리에 들었으니, 좌정할 자리를 정리하는 것을 ‘정대우’라 한다. 심방은 ‘풀찍거리는 벗어다 삼청병매(三千兵馬旗)더레’하고 창하며, 신칼점을 하고 쌀을 캐우린 뒤, 자리를 정리하기 위하여 영기와 명기(차사 영갯기와 시왕맹감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자리를 고르고, 요령을 흔들어 순위대로 앉히는 것이다.

㊱ 삼헌관 헌작배례는 신을 자리에 앉힌 뒤에, 굿을 의뢰한 마을의 대표되는 삼헌관이 삼곡과 폐백을 차린 보답상을 함께 받들어 본향당신에게 바치고 세 번 절한다. 이때 심방은 집사가 되어 헌관이 바치는 상을 들고 옆에서 소원 성취시켜 달라고 빈다.

㊲ 음복지주잔은 拜禮를 한 후, 삶은 계란과 술을 음복한다. 이 때 심방은 술과 계란을 제관에게 주며, ‘이 술은 명재긴 잔, 복 재긴 잔이우다’ 하여, 신이 내린 술이 인간의 명과 복을 이어주는 것임을 노래한다.

㊳ 군웅놀림은 ‘군웅(=조상)’을 놀리는 것으로 마을의 조상은 본향당신이므로 본향당신을 청하여 맞이하여 놀리는 ‘본향뽕’의 마지막 제차다. 신을 좌정시킨 후, 굿자리의 흥을 살려 신을 즐겁게 하는 석살림굿이다. ‘군웅을 놀릴 때’는 ‘탐불’, ‘서우젯소리’, ‘풍리(風流)놀애’ 등으로 흥을 돋구는데 본향당신이 사냥이나 어업을 관장하는 신이면 ‘서우젯소리’로 신을 놀리고, 본향신이 産神이거나 책불일월, 스님과 같은 맑은 조상이면 ‘탐불소리’로 신을 놀린다. 송당의 여신 백주또와 같은 신은 ‘풍류노래’

로 신을 놀린다. 마을의 단골 신앙민들과 심방이 모두 나와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즐겁게 논다. 군웅놀림은 神人同樂하는 석살림 곳이다.

③ ‘추물공연’은 좌정한 신들에게 차린 음식을 대접하는 供宴儀禮로서 ㉠ 나까시리놀림→㉡ 지장본풀이→㉢ 삼천군병지사빔의 순으로 진행된다.

㉠ 나까시리놀림은 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대목이다. 큰 곳에서는 ‘추물공연’이라 하여 심방은 장고를 잡고 앉아 신들을 열거하며 차린 음식을 받으라고 노래하지만, 당곳에서는 소미들이 나와 시루떡을 공중으로 던지면서 돌리고 놀리는 떡춤을 추어 신을 기쁘게 하고, 시루떡을 던져 신이 대접에 흡족해 하는가를 묻는 떡 점을 친다. 인정이 모자라다는 점괘가 나오면 단골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시 점을 치고 마치는 것이 ‘나까시리놀림’이다. 시루떡은 얹어져야吉하다.

㉡ 지장본풀이는 지장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본풀이다. 부모를 잃고 사고무친한 지장 아기씨가 기구한 운명을 딛고 법당에 공을 드려 새의 몸이 되어 태어났다는 이야기이다.

㉢ 삼천군병지사빔은 雜神을 대접하는 儀禮다. 원래 軍兵이란 난리에 죽어 이승도 못하고 저승도 못가서 떠도는 下位 雜神으로 배고픈 신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儀禮다.

#### ④ 석살림(군웅놀림)

‘군웅(=조상)’을 놀리는 것이고, 마을의 조상은 본향당신이므로 본향당신을 청하여 맞이하여 놀리는 <본향當舖>의 마지막 제차이다. 신을 좌정시킨 후, 굿 자리의 흥을 살려 신을 즐겁게 하는 석살림곳이다. ‘군웅을 놀릴 때’는 <탐불>, <서우젓소리>, <풍리(風流) 놀애> 등으로 흥을 돋구는데, 본향당신이 사냥이나 어업을 관장하는 신이면 ‘서우젓소리’로 신을 놀리고, 본향신이 산신이거나 책불일월, 스님과 같은 맑은 조상이면 ‘탐불소리’로 신을 놀린다. 송당의 여신 백주또와 같은 신은 ‘풍류노래’로 신을 놀린다. 마을의 단골 신앙민들과 심방이 모두 나와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즐겁게 논다. 군웅놀림은 신인동락하는 석살림곳이다.

⑤ ‘도산받음’은 당신을 좌정시킨 후, 마을의 1년 운세를 점을 치고, 占卦를 통하

여 신의 뜻을 알아내어 신앙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심방은 수심방과 소미(小巫)들이 가지고 있는 巫占具, 모든 신칼을 한꺼번에 잡고 던져 점을 치며, 산판점도 모든 엽전을 양푼에 담아놓고 던져 점을 쳐서 신의 뜻을 알아낸 뒤, 이 마을에서는 ‘아무 달 아무 날을 조심하라’는 경고와 ‘명심하면 명심덕이 있을 거라’는 주의심을 환기시켜 준다.

⑥ ‘각산받음’은 ‘산을 받는다’는 것은 점을 쳐서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인데, 각산받음이란 마을의 家家戶戶 참석한 단골 신앙민들의 집안의 운세를 점치는 것이다.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되며, 산을 받은 뒤에, 厄運이 있는 집안에서는 厄막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즈음에 참석한 모든 심방들이 단골들을 나누어 신칼점, 산판점, 제비살점을 치고 집안의 운세를 보아주기 시작하여 굿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이들 중 액운이 있는 집안에서는 ‘마을의 도액을 막은 뒤’ 厄막이를 하고, 患者가 있는 집안에서는 患者들을 데리고 나와 넋들이고 푸다시를 한다.

⑦ ‘도액막음’은 마을의 厄運을 막는 祭次다. 祭次는 ‘㉑ 사만이(令監)본풀이→㉒ 산받아분부사됨→㉓ 마을 도액막음→㉔ 각산받음→㉕ 넋들이고 푸다시함’의 순서로 진행된다. 액막이는 우선 마을의 액을 막는 ‘도액막음’을 하는데 닭의 모가지를 잡아 빙빙 돌리다 밖으로 던진다. 이를 ‘代命代充’이라 하는데, 사람의 목숨 대신 닭을 죽여 사람의 액을 막는 것이다. 도액막음이 끝나면 각 집안의 액을 막고, 환자의 넋을 들이고 끝난다.

⑧ ‘산신놀이’ 동세밧당은 하르산당이다. ‘하르산’이란 신명은 漢拏山神系 神으로 狩獵·牧畜의 신이다. 당곳의 마지막에는 本郷堂神이 생전에 하던 생업, 노동 생산 활동을 놀이화한 놀이굿을 하는데, 堂神이 산신인 경우는 ‘산신놀이’, 堂神이 불도활망[産神]인 경우는 ‘서천꽃놀이’와 ‘불도맞이’, 堂神이 海神인 경우는 ‘요왕맞이’, 堂神이 도깨비나 선왕신인 경우는 ‘영감놀이’, 堂神이 蛇神인 경우는 ‘토산당신놀림’을 하여 신을 놀린다. 따라서 동세밧당의 당곳의 막판에 ‘산신놀이’를 한다. ‘산신놀이’는 ‘사냥놀이’라고도 하는데 사냥을 하며 살던 本郷堂神을 놀리는 굿이기 때문이다.

⑨ ‘도진’ 굿을 끝맺고 신을 보내는 ‘送神儀禮’다.

다음은 涯月邑 上貴里 본향당에서 치러지는 당굿의 과정<sup>41)</sup>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이 마을 서쪽 약 1km 떨어진 지점에 陷地가 되어 주위는 석벽이 둘러싸고 안에 굴 모양으로 되어 수목이 우거진 곳이 있다. 여기가 본향당인데 속칭 ‘황다리퀘’라 한다. 이 함지는 길이 20여m 폭이 6~7m의 넓이인데, 함지의 주변은 병풍처럼 석벽이 둘러 있고 사방에 수목이 우거져 있다. 함지의 안쪽에는 석벽이 굴처럼 되어 있는데, 이 곳이 여신 ‘송씨할망’이 좌정한 곳이다. 함지는 길가로 반분되어 돌담을 쌓았고 바깥쪽에 석벽 틈새가 2m 정도 길이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남신인 ‘강씨하르방’이 좌정한 곳이다.

당굿은 ‘송씨할망’이 좌정한 곳에서 하고, 남신인 ‘강씨하르방’이 좌정했다는 곳엔 각 가호에서 차려온 제물을 놓고 축원만 한다. 이 신의 내력담<sup>42)</sup>은 다음과 같다.

“옛날 옛적 송씨할마님이 소국에서 제주도 한라산에 귀양을 왔다. 할머니는 낮에는 청구슬로 놀이를 하고 밤에는 백구슬로 놀이를 하였다. 이 때 상귀리에서 강씨할아버지가 천기를 떠 보니 얼굴은 관옥이요, 인물은 충신인 아가씨가 있음을 알고 마상조총을 메고 찾으러 나갔다. 강씨할아버지는 ‘등물산’을 넘어 한라산을 올라 찾았으나 송씨할머니가 청구슬 백구슬로 조화를 일으키니 찾을 수가 없었다.

강씨할아버지는 끝내 송씨할머니를 찾아내어 뒤쫓으니, 송씨할머니는 말 고삐를 쥘 채 화살 한 대를 쏘으니 ‘御乘生峯’에 지고, 다시 화살 한 대를 쏘으니 ‘보로미동산’에 화살이 지었다. 거기 와서 좌정할까 해 보니 인간이 부정하고 날뿔냄새가 나므로 못 쓰겠다 하여 다시 화살 한 대를 놓으니, 지금 당이 있는 밭의 돌에 맞았다. 그래서 ‘쌀맛인돌’이라 하고 이 지명을 ‘황다리퀘’라 지어 만년 늙은 팽나무 밑으로 좌정했다. 그랬더니 강씨할아버지가 뒤쫓아 와서 안쪽 굴 속에 좌정하니 육식을 하는 신이라 날뿔냄새가 나서 못쓰겠으므로 다시 안쪽(바람 위)으로 좌정했다.

옛날 당 오백, 절 오백 부술 때는 이 당을 부수려고 하니 당신이 청비둘기로 변하

41) 제주도, “마을신앙편”, 『제주의 민속』, 1996, pp.100~104.

42) 1970년 陰 2월 27일 당굿 때에 본향신을 청하는 대목(본향드리)에 이 당의 메인 심방인 金性孝(男巫)씨 서술

므로 상귀리민들이 뒷쪽 ‘돈물’에 가서 이 비둘기를 숨겼다가 다시 이 곳 ‘황다리케’에 좌정시킨 신이다.

제일은 1년 1회, 정월 7일. 7일이 유고시는 17일, 27일로 연기한다. 제명은 당곳 또는 당제라 부른다. 제물의 준비는 이장 집에서 하고, 기타 준비도 이장이 수고한다.

제관은 향장, 연로자, 이장 등이 삼헌관이 되고 도포에 유건을 쓰고 대기했다가 심방의 지시에 따라 배례 헌작 등을 한다. 제물은 마을 공동축원을 위한 都祭床의 제물과 가호별 축원 제물이 있다. 전자는 이장이 준비하고 후자는 각 가정에서 준비하고 參祀한다.

어느 것이든 준비하는 제물은 메 2기 시루떡, 다레(돌래떡), 해어, 오과, 실(명실), 쌀, 백지, 돈 등이다. 도제상 용에는 폐백으로 쓸 무명 1필과 액막이에 쓸 닭(수닭) 한 마리를 준비한다. 진설은 도제상 용 제물을 우선 ‘송씨할머니’ 신 좌정처인 굴 앞에 진설하고 각 가호에서 차려 온 제물들을 그 앞에 벌려 놓는다.

진설을 다하면 오전 10시쯤 굿이 시작되는데, ① 초감제, ② 예명올림, ③ 분향드리, ④ 삼헌관배례, ⑤ 마을도액막음, ⑥ 즈손들 궤묻음, ⑦ 도진’의 제차와 같은 차례로 진행된다.

① 초감제 : 신을 청해 들이는 제차이다. 제단 앞에서 소무들이 북, 징, 설채를 치고 首巫가 ‘軍服(巫服)’으로 정장하여 가무로써 집행한다. 약 1시간 동안 춤을 섞어가며 긴 사설을 창하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오늘은 庚戌年 정월 17일, 어느 마을 누구가 정성을 올리느냐 하면, 애월읍 상귀리 백여호 백성들이 신도분향한집님 ‘송씨할마님’과 ‘강씨하르바님’께 대제일로 정성을 올리면 이 자손들 무사 편안시켜 줄까 하여 올리는 정성입니다. 신과 인간이 다를 바 있습니까? 문을 열어야 오시는 법입니다. ‘초군문’, ‘이군문’ 다 엽니다. 모든 신위는 다 오십시오.”

이와 같이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고하는 대목을 ‘날과 국섬김’이라 하고, 굿하는 사유를 고하는 대목을 ‘연유답음’이라 하며 신이 오는 문을 여는 대목을 ‘군문 열림’

이라 한다.

이렇게 굿하는 날짜, 장소, 사유를 고하고 ‘군문’을 열어 신을 청해 들이기가 끝나면 ‘예명올림’을 한다.

② 예명올림 : ‘列名올림’의 와전인 듯하다. 이것은 신을 청해 놓았으니, 굿에 참가한 각 가호의 가족의 성과 연령을 모조리 올리며 복을 비는 제차이다.

“성은 강씨 초헌관님 이른 들에, 아헌관님 성은 홍씨, 원에 아홉 받은 공스외다. 다음으로 므을 대표 성은 홍씨 서른 다섯, 성은 강씨 서른 세설 이룬 공스 받으소서. 봄 석돌 여름 석돌 부귀영화 시기시고…….”

이런 방식으로 參祀者의 온 가족의 행운을 일일히 빌고 잠깐 쉬어 ‘본향드리’로 넘어간다.

③ 본향드리 : 본향드리란 본향신을 청해 들이는 제차이다.

위에서 말한 초감제에서와 같이 굿하는 날짜, 장소, 사유를 노래하고 본향신의 내력담을 창한 후, 이 신을 청해 들입니다는 내용의 사설을 창한다. 그래서 데령상(신을 청할 때 쓰는 제상)을 당의 출입구에 갖다 놓고 심방은 신칼과 감상기를 들어 춤을 추며 바깥에 나가 신을 모셔 들이는 행동을 3회 반복한다. 이 때는 참으로 정중하고 엄숙한 순간이라서 일동이 모두 일어서서 조용히 신이 오시기를 기다린다. 심방도 아주 엄숙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손에 쥔 ‘감상기’와 ‘신칼’을 달달 떨며 엎드려 뛰기도 한다. 만일 신칼 점이 신의 뜻대로 하강치 않음을 나타낼 땐 심방이 눈을 부릅뜨고 술을 사방에 뿌어대며 야단을 한다. 이럴 일동이 손을 비비고, 어떤 이는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하며 오시기를 빌기도 했다.

④ 삼헌관배례 : 이렇게 하여 신을 청해 들이고 신칼점으로써 확인되면 삼헌관을 제단 앞에 세워 분향 배례를 시키고 폐백을 올리고 소지를 살고 헌작을 하게 한다. 이 때 심방은 옆에 서서 삼헌관을 비롯한 온 마을의 복을 축원하여 준다. 삼헌관의 배례가 다 끝나면 일반인의 배례가 있다.

⑤ 마을도액막음 : 당에 소속되어 있는 신당차사에게 마을의 액을 막아 주도록 빌

고 폐백과 지전을 불살라 올리고 수탉 한 마리를 ‘목숨대명’이라 하여 모가지를 비틀어 던진다. 그래서 점을 치고 마을 길흉을 판단하여 전달한다.

⑥ 즈손들 케묻음 : 참사자 각 가호의 복을 받고 1년간의 길흉을 점쳐 보는 것이다.

⑦ 도진 : 당굿이 끝났음을 고하고 신을 좌정시키는 과정이다. 원칙은 ‘지장본풀이’ 하고 ‘삼천군병질침’을 하는 것인데 시간관계라 하여 이를 생략하고 하오 5시경에 굿은 전부 끝났다. ‘삼천군병질침’이란 하위신들을 대접하여 보내는 제차이다.

그리고 이 굿에 정식 제차로 놓이진 않았지만 분향신을 청하고 삼헌관이 배례한 후엔 잠시 쉰다. 이 때 심방이 이젤랑 노래하면서 놀라고 하였다. 그러니 청년, 부인, 노인 할 것 없이 나서서 양산도, 청춘가, 노래가락들을 불러가며 서로 어울려 덩실덩실 춤추며 한참을 즐겁게 노는 것이었다. 이렇게 즐겁게 놀아야 신도 풀어져 즐긴다는 관념이 있다. 옛날 ‘群聚歌舞’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다.

이 涯月邑 上貴里 당굿은 마을의 신년제다. 이 제는 신과세제로써 겨울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농사의 풍등을 기원하는 계절 제의이며, 마을 수호신인 당신에게 신년하례를 드리는 당굿이다. 굿의 비용은 마을 기금이나 집집마다 쌀이나 돈을 추렴하여, 마을 이장이 공동으로 차리는 도젯상의 제물을 차리고, 마을의 원로나 남성유지를 헌관으로 하여 지내고 있다. 제일날 아침에 마을 각 호에서 주로 여성이 제물을 구덕에 지고 분향당에 모여 당안의 제단에 축원용 제물을 옹기종기 벌여 놓는다.

이 마을에서는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와 거릿제가 있었는데, 4·3 이후 정월 上丁日에 지냈던 포제가 없어지고 거릿제와 당굿만 지낸다. 거릿제는 상동과 하동이 별도로 지내고, 당굿은 합동으로 지낸다. 마을 이장이 중심이 되서 준비도 하고 삼헌관으로 마을의 남성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醮祭를 지내지 않는 대신 당굿을 마을제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굿을 통해서 마을의 안녕, 생업의 풍요 등을 기원하고, 또 참가한 각 집안마다 가내 안녕과 생업의 번창을 비는 것이 주가 된다.

## 2) 당굿의 儒式化

위에서 살펴본 무속적 당굿이 여성 중심의 신앙형태였다면 남성 중심으로는 儒敎式 마을제인 醮祭가 행해졌다. 醮祭는 대상신이 ‘醮神之位’인데서 비롯된 명칭으로 가장 일반적이다. 이를 ‘里社祭’라고도 하는데 대상신이 ‘里社之神’으로 ‘마을의 社稷을 담당한 神’을 위한 의례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마을제가 여성 중심의 당굿과 남성 중심의 포제로 분리되어 행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와서 남성위주의 유교적 봉건질서가 확립되고, 무속을 천시하는 풍조와 동시에 유교식 제례법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포제가 생겨났을 것으로 본다. 당굿과 포제는 원래 하나로 男女共有의 巫式 마을제였던 것이 조선시대에 와서 여성이 주도하는 당굿과 남성이 주도하는 유교식 마을제로 분리된 것이다. 그러므로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는 마을의 자치와 관련하여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등을 빌고 집안마다 무사하길 비는 축문으로 보아 堂信仰(당굿)의 변형임을 알 수 있다. 곧 심방 [巫覡] 이 굿으로 하는 의례가 釋尊祭의 의전 절차에 따라 신에게 소망하는 축문을 읽는 유교식 의례로 변한 것이다.

다음은 당굿이 儒式化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당굿은 크게 개인적 의례라 할 수 있는 무속적 家祭와 온 마을이 공동으로 굿을 하는 村祭로 나눌 수 있다. 이 巫俗的 家祭와 村祭의 代行儀禮가 유교식 의례인 山祭와 醮祭다.

‘산제(山祭)’란 ‘土地之神位’에게 올리는 祭로 매년 舊正이 되면 祭관은 家主나 사람을 빌어서 3일 동안 精誠을 하고, 심야에 지낸다. 제물은 稻梁稷飯, 餅類, 果類, 菜類 그리고 돼지나 닭의 희생과 명주, 무명, 백지 등의 폐백을 올리며, 단헌이 횡배로 의식을 행한다. ‘산제’는 家屋新築時, 葬禮時나 移墓時 등에도 먼저 土地之神에게 행하는데 그 祝文은 행사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산제’가 첫째, 그 명칭이 ‘土地神祭’ 또는 ‘산제(山祭)’로 불리는 점. 둘째, 그 축문이 무속의 祝禱와 유사한 점, 셋째, 그 분포가 全道的이며 일부에서는 堂儀禮로 하되 이 토신제는 아니 지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당에 다니지 않는 대신 이 ‘산제’

는 지내야 일년이 무사하다고 해서 堂儀禮 대신으로 관념하는 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家祭인 ‘산제(山祭)’가 본향당곳에서 家祭的 의례의 儒式化라 할 수 있다.

‘醕祭’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각 마을마다 거의 행해졌던 村祭다. 이 祭는 舊正初에 마을 유지들이 모여 祭日과 祭廳, 祭官들을 선정하고 마을 각 家戶에 祭費를 분담 수렴하여 제수를 준비한다. 祭需은 토지신제와 같으나 희생은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한다. 제관은 3일 전에 제청에 合宿齋戒하고 深夜에 제를 올리는데, 祭場은 마을 안 空地나 상설제단에서 하며, 祭法은 향교의 釋奠祭와 같다.

그런데 이 ‘醕祭’도 첫째 祝文이 巫祭의 祝禱詞와 유사하며, 그 제법이나 분포가 무속의례와 유사 내지 관계 깊은 점, 둘째 조천읍 북촌, 구좌읍 동복리 같이 舊正에 ‘거리도청제’라는 곳을 포제 翌日 행하였던 곳이 있는 점, 이는 儒式村祭 後에 巫式村祭를 하는 것으로 儒巫式儀禮의 竝存 형태이다. 셋째, 성산읍 新豊, 新川, 下川 등 마을에서 儒巫混合式 村祭를 지냈던 경우가 있는 점, 이는 본래 純巫式 村祭인 당곳이 儒式과 混合된 형태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이 儒式醕祭는 당곳이 村祭的 성격에 치우쳐진 儒式化된 儀禮임을 알게 한다.

이렇게 당곳이 지니고 있는 家祭的, 村祭的 兩性格이 각각 한 쪽으로 기울어져 하나는 ‘산제(山祭)’로 다른 하나는 ‘醕祭’로 儒式化되었다.

다음은 일반적인 포제의 행제 과정을 제시한다.

#### ① 祭日

제일은 정월 上丁日 子時에 行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날 마을이 부정할 경우에는 중정일로 연기하거나, 해일로 연기한다. 보통 이를 ‘혹정혹해’라 한다. 연중 2회 마을제를 지내는 사례도 있는데, 정월과 7월 ‘혹정혹해일’에 한다. 정월 ‘혹정혹해일’에 지내는 것을 포제라고 하며, 7월 ‘혹정혹해일’에 지내는 것을 ‘별제’ 또는 ‘충제’라 한다. 이러한 ‘별제’가 없어지면서 정월 포제시에 두 신위를 모시고 행제하는 마을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포제단의 제단도 둘 이상으로 늘게 된다. 또 정월에 당곳을 하고 7월에 포제를 지내는 마을도 꽤 발견된다(애월읍 광령2리 유신동, 제주시 해안동 등).

## ② 포제향회

포제 관리는 마을 남성들에 의해 주도된다. 제의를 준비 계획하고 집행하며 사후 결산하고 하는 조직이 '포젯향회'다. 포젯향회는 마을의 지연,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조직으로 자치성이 강하다. 연말이 되면 포제 준비를 위한 '포젯향회'를 열어 제향비, 제청, 제의준비, 제관 선출 문제 등을 논의하며, 포제가 끝나면 결산 총회를 한다.

## ③ 제관, 재계

향회에서 선출되는 제관은 12제관이다. 그 중 소집사의 수를 줄여서 6제관으로 하는 곳도 있고, 도예차까지 넣어 13제관을 뽑는 데도 있다. 12제관은 제관으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사회자로서 홀기를 부르는 집례, 축문을 고하는 대축, 집례가 홀기를 읽는 대로 제관을 인도하는 알자, 국궁배를 부르는 찬자, 흥을 부르는 찬인, 향로를 받드는 봉로, 향을 받드는 봉향, 부은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는 봉작, 술병을 관리하고 술을 부어주는 사준, 헌관이 올리는 술잔을 젓상에 올리는 전작, 모든 제물을 관리하는 전사관이며, 예비 제관 도예차를 합하면 13제관이 된다. 뽑힌 제관들은 제청에 입소, 3일 동안 정성을 하는데, 이를 '3일 정성'이라고 하며, 과거에는 5~7일 동안 정성을 드렸다고 한다. 제청에 합숙하는 3일의 정성 기간에는 금줄을 쳐서 부정한 자의 출입을 막고, 공동생활을 한다. 이 기간에는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영장을 봐서도 안 되며, 오줌허벅을 진다든가 더러운 물건에 손을 데지 말며, 개고기나 말고기 같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되며, 성행위를 삼가야 한다.

첫째날 : 준비 및 예행연습

둘째날 : 제물 및 축문 홀기 등 제문 준비

셋째날 : 제물봉헌 행제

④ 제물준비 : 제일 전날 전사관이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향교의 석전제 때 올리는 제물과 같고, 전도 공통적이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도미일승 : 쌀 한 되

양미일승 : 서속쌀 한 되

서미일승 : 기장쌀 한 되

직미일승 : 피쌀 한 되

주미일두 : 술 빚을 쌀 한 말

편미일두 : 떡 만들 쌀 한 말

녹포삼정 : 사슴고기의 포 세 마리

어포삼미 : 말린 바닷고기 세 마리

형염일승 : 사슴고기 적

어염일승 : 저린 바닷고기

율황일승 : 밤 한 되

향일승 : 향 한 되

축일봉 : 초 한 봉

폐백지삼장 : 폐백지 세 장

토지일권 : 토지 한 권

희생일두 : 희생으로 돼지 한 마리

성산읍 온평리인 경우, 희생으로 소 한 마리를 잡고, 전각 한 다리는 ‘포젓균’의 제물로 쓴다.

#### ⑤ 제차

포제의 제차는 어느 마을이나 석전제에 준하며, 신위의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뿐이다. 도내 포제의 제차는 크게 다음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 본제만 지내는 곳.

나. 본제와 분향신제를 지내는 곳.

다. 본제와 분향신제, 농·목신제를 지내는 곳.

라. 상단제(본제)와 하단제를 지내는 곳.

마. 상단제(본제)와 하단제, 무신제를 지내는 곳.

그리고 그 행제하는 제차는 ‘전폐례 - 초헌례 - 독축 - 아헌례 - 종헌례 - 음복 - 첼변두 - 망료’의 순서다.

이 순서대로 집례가 창하는 홀기에 따라 각 제관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그 홀기나 행제방법은 향교의 제의와 같기 때문에 생략한다. 그러나 주신 이외에 원혼이나 분향신 등 부신을 모시는 경우, 포제의 행제 방법은 마을마다 각각 달라진다. 이 중 유교식 마을제로 치러지는 醮祭의 과정을 涯月邑 今德里 유수암 포제<sup>43)</sup>를 들어 살펴보자.

유수암의 포제는 거의 전형적인 유교식이라고 할 수 있다. 포제의 제의장소는 4·3사건을 계기로 여러 번 이동을 하게 된다. 즉 처음에는 포젯동산에서 하였으나 4·3사건이 일어나자 포젯동산이 성 밖에 있는 까닭으로 그 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마을에 있는 ‘당아즌밭’이라는 곳에서 里社之神에게만 2년 동안 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4·3사건이 끝나자 포제동산에서 醮神과 里社之神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두 신의 역할은 각각 다르다. 里社之神은 토지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마을의 안녕을 관장하며, 일년 농사가 풍년이 들도록 해주는 등, 마을의 모든 곡식과 과일을 관장하며, 질병 예방에도 관여한다고 한다. 포신은 그 마을을 통치하는 신인데 단지 마을에 해를 끼치지 말아 달라는 의미에서 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사가 主 생업이었던 이 마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里社之神을 더 잘 모셨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行祭時에 술잔을 올리는 순서 역시 里社之神에게 먼저하고 그 다음 포신에게 올린다고 하며 여자들은 참석을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정월에 里社之神에게, 칠월에 포신에게 이렇게 두 번 제를 지내다가 요즘에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를 간소화시켜서 정월에 포신과 里社之神에게 제를 한번 지낸다고 한다. 정월 초 丁日에 지내는데, 마을에 부정한 일이 있거나 다른 사정이 생기게 되면 中丁日 또는 亥日로 연기한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자시 즉 밤 한시 가까이에 지내게 되며 약 40분 정도 걸린다.

祭費로는 마을 향회비나 결혼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동접례, 혹은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 회사한 비용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동접례로 받던 돈은 20냥이며 오늘날의

---

43) 제주도, ‘마을신앙편’, 『제주의 민속』, 1996, pp.86~90.

약 5,000원 정도이다. 또는 각 호마다 한 두 냥씩의 돈을 건어서 마련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향회에 불참자로부터 좁쌀이나 보리쌀 한 되를 벌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 (가) 儀式節次 및 方法

① 酺祭 鄉會 : 포제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공회당에 모여 제관을 선출하고 제비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정성하는 전사관집을 이때 결정한다. 제관의 선출을 보면 일단 전사관과 초헌관을 사전에 이장에게서 선임권을 위임 받아 정하게 된다. 이때 성씨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원칙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고려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이가 적을수록 아랫 제관이 되며 대축은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맡게 된다.

② 祭官 : 祭官은 모두 14명으로서 다음과 같다. 그리고 찬인이 없는 것이 특색이다.

- 初獻官 : 祭官
- 亞獻官 : 祭官
- 終獻官 : 祭官
- 執禮 : 지휘관 (홀기를 읽는 사람)
- 典祀官 : 제물을 준비하고 진설하는 등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
- 大祝 : 축문을 읽는 사람
- 謁者 : 행제할 때 헌관을引導하는 사람
- 贊者 : 집례가 부르는 홀기에 보조하는 사람
- 奉香 : 향을 받드는 사람
- 奉爐 : 향로를 들어 받드는 사람
- 奉酌 : 헌관에게 술잔을 드리는 사람
- 司樽 : 행제 시에 술을 관리하고 잔에 술을 부어 주는 사람
- 典酌 : 헌관이 드리는 술잔을 신위에 올리는 사람
- 都豫差 : 예비제관

③ 笏記 : 홀기란 제를 지내는 절차와 각 절차마다 해당 제관들이 어떻게 행동해

야 하는가 하는 제의방법을 기록한 문서이다. 里社之神과 포신의 兩神에게 제를 지낼 경우 홀기는 하나로 부르면서 里社之神에게 먼저 술잔을 드리고 그 다음 포신에게 술잔을 드리는 형태로 제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유수암 포제의 홀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西紀 00年 陰正月 十六日 里社祭 笏記

謁者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鞠躬拜. (興)平身. 詣盥洗位 西向立 盥手. 各就位. 謁者引 獻官 入就拜位. 謁者進初獻官之左. 白有司謹告請行事. 四拜. 獻官皆四拜. 鞠躬拜興平身. 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西向入. 搯笏. 盥手. 執笏. 引詣里社神之位前. 南向立. 詭搯笏. 三上香. 獻幣. 執笏. 俯伏興平身. 次詣醑神之位前. 南向立. 詭搯笏. 三上香. 獻幣. 執笏. 俯伏興平身. 引降復位. 行初獻禮. 詣謁者引初獻官. 詣里社神之位樽所. 西向立. 執樽者舉纂酌酒. 引詣里社神之位前. 南向立. 詭搯笏. 獻爵. 執笏. 俯伏興退詭. 讀祝. 俯伏興平身. 次詣醑神之位樽所. 西向立. 執樽者舉纂酌酒. 引詣醑神之位前. 南向立. 詭. 讀祝. 俯伏興平身. 引降復位. 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 西向立. 搯笏. 盥手. 執笏. 引詣里社神之位. 樽所. 西向立. 執樽者舉纂酌酒. 引詣里社神之位前. 南向立. 詭. 搯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次詣醑神之位. 樽所. 西向立. 執樽者舉纂酌酒. 引詣醑神之位前. 南向立. 詭. 搯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引降復位.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 詣盥洗位. 西向. 搯笏. 盥手. 執笏. 引詣里社之神位. 樽所. 西向立. 執樽者舉纂酌酒. 引詣里社之神之位前. 南向立. 詭. 搯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次詣醑神位樽所. 西向立. 執樽者舉纂酌酒. 引詣醑神位前. 南向立. 詭. 搯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引降復位. 飲福. 受俎. 謁者引初獻官. 詣飲福位. 東向立. 詭. 搯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受爵飲卒爵. 以授執事者. 執事者受虛爵. 執事者以俎授獻官. 獻官受俎以授執事者. 執事者受虛俎. 執笏. 俯伏興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及在位者皆四拜. 鞠躬拜(興)平身. 徹籩豆. 四拜. 獻官及在位者皆四拜. 鞠躬拜(興)平身. 望燎. 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 東向立. 盖燎. 謁者進初獻官之左. 白禮畢出. 初獻官以下. 以次出. 謁者引祝及諸執事. 俱復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鞠躬拜(興)平身. 祝以下次出.

④ 축문 : 今德里에서는 醑神과 里社之神의 두 신에게 제를 지내므로 축문도 역시 두 개가 있다. 그리고 각 신에게 고하는 축문의 기원 내용 역시 이들 신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 축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醑神祝文>

維歲次 癸酉正月 甲辰朔 二十四日 丁卯 里民代表 訓長 姜朝行 敢昭告于 醮神伏以 守疆護界 惠我思德 休養生息 有禱必格 多賴冥右 令當元正 致齋告由 伏惟尊靈 垂陰鷲 天調風雨 地掃牡隲 添此吉祥 防彼癘疫 豐其百穀 殖其六畜 必從我民 除災降福 在家戶戶 增其農工 出他學務 添其疆福 一鄉之內 安平俱吉 庶幾來往 至誠伏祝 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尚饗

<里社之神 祝文>

維歲次癸酉正月甲辰朔十四日丁巳里民代表訓長姜朝行 敢昭告于 里社之神 伏以護我 民司我一鄉 赫神之德 萬歲不忘 自當新正 是用禮祀 自令二後 倍用懿德 雨順風調 歲熟人滋 勿侵癘疫 消滅災殃 俾我角鬣 一切垂茲 神其來歆 保佑五方 於千萬年 報賽無斃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尚饗

⑤ 齋戒 : 제청(전사관집)에 입소한 후 7일 동안 정성하게 된다. 마을 곳곳마다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길에 금줄을 치는데 보통 5일 전에 친다. 이는 부정한 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제청에 입소한 제관들은 모두 공동생활을 한다. 이 기간에는 시체나 더러운 것을 봐서도 안 되고, 개고기, 말고기를 먹거나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는 삼가며 특히 제관의 몸에 상처가 나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때 개소리, 쇠(牛)소리나 닭소리는 귀신을 쫓아 버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 소리가 들리면 불길한 징조이고, 썩, 말(馬)소리가 들리면 길조라고 한다.

(나) 祭物, 祭器 및 祭服

祭器의 경우 마을에서 쓰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쓰는 그릇으로 전사관 나뉘대로 준비하였다. 행제 시에는 도포와 청금을 입는데, 이 청금은 파란 물을 들인 것이다. 요즘에는 흰 것도 사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도포에는 술띠를 땀다.

① 稻粱黍稷 : <흰쌀, 좁쌀, 기장, 피>가 원칙이나, 요즘에는 흰쌀메 2그릇과 좁쌀메 2그릇을 준비하며 좁쌀의 경우는 하나는 흑색, 다른 하나는 노랑색을 준비한다.

② 鹿脯 : 녹포란 원래는 사슴고기 말린 것을 의미하는데 이곳에서는 녹포를 쇠고기로 대신한다.

③ 해어(어회) : 해어로는 명태를 준비하는데 里社之神에게만 올리고 土地之神에

계는 쓰지 않는다.

- ④ 비자, 대추, 밤, 유자, 감,배 - 5실과
- ⑤ 미나리(필수), 무우, 콩나물
- ⑥ 폐백(1필), 무명, 백지 1권

⑦ 犠牲 : 예전에는 희생으로 검은 돼지 한 마리를 올렸는데, 특히 里社之神에게는 전체를, 포신에게는 머리만 올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里社之神, 포신에게 모두 각각 검은 돼지 한 마리를 희생했는데, 요즘에는 흰 돼지 두 마리를 잡아서 희생으로 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다. 단지 경제적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두 신 모두에게 돼지 한 마리를 올리는 것이다. 포신과 里社之神에게 올리는 제물은 같다.

제물 진설도는 다음과 같다. 단, 왼쪽에는 소금을 하지 않은 음식을 진설하고 오른쪽에는 소금을 한 음식을 진설한다.



<祭物 陳設圖>

<醮神之位(里社之神位)>

		지 방				
미나리	무	서		도	포	유자
		초			초	
명태	해어	직		량	잡실과	사과·배
			잔 잔 잔			
		폐백		희생		
			향 로			
			모 혈			

이 涯月邑 今德里 유수암 포제는 釋奠祭를 기본 틀로 하는 유교식 의례방식에 따라 행제하고 있으며, 남성들에 의해 관리되고 남성 有志들이 제관이 되어 거행하는 마을제다. 행제과정이나 제물, 제물진설 방식, 제관 등 모든 면에서 三姓祭儀와 유사

하다. 이것은 앞서 애월읍 상귀리의 경우와는 반대로 무속적 당굿이 마을제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면서 유교식 제사인 포제가 당굿을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유교적 국가 정책으로 말미암아 마을제를 남성은 유교식 제사, 여성은 무속적 당굿으로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마을제의 원초형은 유교식 제사와 무속적 당굿이 이원화되지 않은 남녀 공동의 무속적 당굿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廣壤堂에서 男女群聚’하였다는 기록과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마을제에서 그 근거<sup>44)</sup>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마을제로서의 당굿이나, 포제 그리고 三姓祭儀인 춘추제와 건시대제는 그 의례적 기능면에서 유사하다. 제주도 당신앙은 마을이 형성되기 이전 狩獵 또는 漁撈生活을 하며 이동하던 토착씨족들의 小集團 신앙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小集團들이 일정한 所居地를 정하고 定着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마을의 형성은 本鄉堂 신앙을 완성시켰다. 본향당 신앙은 수렵에서 농경사회로의 移行期에 이루어진 신앙이며, 당굿을 통하여 血緣·地緣 집단을 강화하는 마을공동체 신앙이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신앙으로서의 당굿이 조선시대에 와서 유식화의 과정을 거쳐 마을의 醮祭로 치러지거나, 삼성신화로 문헌기록화 되면서 유교식 三姓祭儀인 春秋祭와 乾時祭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처럼 주기적으로 행하는 마을의 당굿은 소집단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게 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유교식 의례인 醮祭나 三姓祭儀도 당굿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들의 결속을 강화시키며, 마을공동체 의식을 유지시킴으로써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당굿과 삼성신화

앞에서 당굿이 ‘산제’나 ‘醮祭’로의 儒式化로 말미암아 무속의례가 변형되는 과정을 살폈는데, 이에 따라 堂神話(당본풀이)는 어떤 변형의 과정을 밟았으며, 堂神話의 변형은 삼성신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현용준은 삼성신화의 화소들을 분석하고, 堂神話와의 유사성을 고찰한 바 있다.<sup>45)</sup>

44) 성산읍 온평리 포제와 포제굿, 조천읍 와흘리의 남녀공동의 당굿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삼성신화의 三神人 地中湧出 화소가 당신화의 漢拏山出生系 堂神 또는 松堂系 堂神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기했다. 또 문헌기록인 淡水契編 『耽羅誌』의 ‘廣壤堂’에 대한 기록을 들어 廣壤堂神은 漢拏山出生系 堂神이 분명하며, 三乙那는 이 신과 主從的 系譜의 신이며, 三乙那神도 廣壤堂神과 같은 堂神으로 漢拏山出生系 또는 松堂系의 本鄉堂神과 관계 있는 신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儀禮도 광양당굿과 마찬가지로 본래는 巫俗儀禮로 행했을 것이며, 高良夫 三氏族은 이 신을 奉祀했던 ‘단골’ 씨족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三神人이 所居地를 선정하는 ‘射矢卜地’ 방식은 西歸本鄉神의 좌정지 선정 방식과 흡사하다. 그 堂神話에男神 ‘벼르못도’가 미녀인 처제 ‘지산국’을 데리고 도망가자 처인 ‘고산국’이 한라산까지 쫓아와 옥신거리다가 결국 좌정지를 다시 정하여 들어가자고 합의하여,男神 ‘벼르못도’는 화살을 쏘아 화살이 지는 서귀포를 차지하여 堂神이 되고, 妻神은 뽕개질을 하여 홍리를 차지하여 갔다는 화소다. 이러한 화소는 삼성신화의 ‘射矢卜地’와 흡사하다. 끝으로 三神人이 碧浪國王女와 혼인하는 화소는 松堂系 神話의 東海龍王國 王女와 혼인하는 점과 같고, 三神女가 가져온 ‘駒犢五穀種’으로써 농경 정착했다는 것은 松堂神話의 ‘소천국’이 妻神인 ‘백जू도’의 권유로 농경을 시작하게 되고 마음대로 잡아먹던 소를 그 때부터 잡아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話素와 같다. 이처럼 삼성신화는 漢拏山出生 堂神과 밀접한 계보 관계의 本鄉堂系 神으로 本鄉堂 神話와 동일계 신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堂神話가 氏祖神 崇拜面에 편중되자 유교적 祖上崇拜로 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제의도 儒式化 되었으며, 高良夫 三氏族의 세력에 힘입어 始祖神話, 開國神話로 변모해 갔다.

문무명도 本鄉堂 신앙의 변모 과정을 설명하면서 삼성신화의 三分體系는 堂信仰 體系의 발전형으로 보았다.<sup>45)</sup> 堂信仰 體系의 原初型은 本鄉堂 信仰과 産育·治病神 信仰으로 양분되는데 삼성신화는 이 雙分體系에서 발전한 것으로 본다. 그는 삼성신화와 三姓氏族의 관계를 堂神話와 단골 信仰民의 관계로 고찰하였다. 本鄉堂神은 한

45) 현용준, “당굿의 유식화와 삼성신화”, 『제주도』 14, 제주도, 1964.

46) 문무명,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pp.234~238.

마을을 개척한 地緣的 先住民이면서 血緣的 設村 祖上神이다. 이러한 地緣·血緣 관계를 맺는 堂神이 常住하는 神聖處로써 堂에는 上계, 中계, 下계라는 穴이 祭壇에 設置되어 있어 당굿을 할 때는 이 窟문을 열고, 당굿이 끝나면 窟에 잡식을 넣어 窟문을 닫는다. 그리고 이 당굿을 주관하는 신앙민은 상단골·중단골·하단골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골의 구성은 마을의 信仰集團을 三分한 것이며, 신앙집단의 三分體系는 집단 구성원이 氏族別 勢力의 版圖가 序列化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삼성신화는 여러 씨족들이 집합하여 마을이 형성되던 시기를 지나 여러 마을이 연합하여 부족국가 형태를 갖추어 가던 시기에 완성된 <당본풀이>의 발전형으로 본다. 高·良·夫 三姓의 氏族集團은 각 마을의 상단골 조직이며, 그들의 祖上神은 設村한 本鄉堂神에서 開國의 始祖神으로 位相이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보아온대로 삼성신화는 堂神話와 그 話素의 유사성에서 볼 때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雙分的 堂信仰 體系에서 발전된 신앙집단의 三分體系가 그들의 本鄉堂神을 始祖神으로 받들어 社會組織의 三分體系와 같은 三神人의 三機能 體系로 완성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三姓祭儀도 애초에 巫俗儀禮로 행해져 왔을 것이며, 後代에 와서 儒式化되면서 오늘날 儒式儀禮인 春秋祭와 乾時大祭로 탈바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儒敎式 儀禮

### 1) 宗廟祭禮와 社稷大祭

#### 가. 宗廟祭禮<sup>47)</sup>

종묘제례는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의식으로, 조선시대 나라 제사 중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였기 때문에 종묘대제(宗廟大祭)라고도 한다. 종묘는 조선조 역대 왕과

47) 김동욱, 『종묘와 사직』, 대원사, 1990.

왕비, 그리고 나라에 공적이 있는 공신들의 신주를 모셔 놓은 사당으로, 사직과 더불어 국가의 근본을 상징하는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이다. 종묘 정전의 19개 신실에는 태조를 비롯한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으며, 영녕전 16실에는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하고 있다.

종묘제례는 크게 정시제(定時祭)와 임시제(臨時祭)로 나뉘며, 계절에 따라 햇과일이나 곡식을 올리는 천신제(薦新祭)도 있었다. 정시제는 봄·여름·가을·겨울의 첫 달인 1월·4월·7월·10월과 납일(臘日: 12월에 날을 잡아 지내는 선달 제사)에 지냈으며, 임시제는 나라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지냈다. 종묘제례는 해방 이후 한때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1969년부터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행사를 주관하여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하고 있다.

조선시대 종묘대제 때에는 왕이 세자와 문무백관, 종친 등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와 친히 제향을 올렸는데 이것을 친행(親行)이라 하였다. 반면 왕이 유교로 친행하지 못할 때에는 세자나 영의정이 대행하였으며 이를 섭행(攝行)이라 한다.

종묘제례가 있기 전에 왕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재계(齋戒)를 하는데, 제의를 지내기 전 4일 동안은 산재(散齋)하고 그 다음 3일 동안은 치재(致齋)를 한다. 재계를 하는 동안에는 음식을 간소히 하고 죄를 다스리거나 기타 불길한 일은 일체 금한다. 제사에 참여하는 제관들 역시 재계와 함께 각종 금기사항을 지킨다.

종묘제례의 절차는 신을 맞이하는 절차, 신이 즐기도록 하는 절차, 신을 보내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절차를 보면 ‘선행절차 → 취위(就位, 제사가 시작하기 전에 제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배치됨) → 영신(迎神, 조상신을 맞이함) → 신관례(晨裸禮), 왕이 제실까지 가서 향을 피워 신을 맞아들임) → 진찬(進饌, 음식과 고기를 드림) → 초헌례(初獻禮, 초헌관이 술을 올리고 절하며 축문을 읽음) → 아헌례(亞獻禮, 신에게 둘째 술잔을 올림) → 종헌례(終獻禮, 마지막 술잔을 올림) → 음복례(飲福禮, 제사에 쓴 술이나 음식을 나누어 먹음) → 첩변두(撤籩豆, 제상에 놓인 고기나 과일을 거둬) → 송신(送神, 조상신을 보냄) → 망료(望燎, 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움) → 제후처리(祭後處理)’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수는 그릇의 종류가 63종이며, 여기에 담겨지는 제물은 곡식 4종, 젓갈 4종, 떡 6종, 과일 5종, 김치 4종 외에 소, 양 돼지로 만든 국과 고기 9종, 포 2종, 술 5종과 기타 5종이며 이들은 모두 일정한 위치에 놓인다.

종묘제례는 왕실에서 거행되는 장엄한 국가제사이며, 임금이 친히 받드는 존엄한 길례였다. 이를 통해 민족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유교 사회에서는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家禮)의 다섯 의례(五禮) 중 길례인 제사를 으뜸으로 여겼으며, 이를 ‘효’ 실천의 근본으로 삼았다. 유교가 국가의 근본이념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조상에 대한 숭배를 인간의 도리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법도로 여겨 제사를 특히 중시하였다. 예로부터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나라를 건국하고 번영시킨 왕과 왕실의 조상과 국가 발전에 공헌한 문무대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 나. 社稷大祭<sup>48)</sup>

사직제는 토지를 관장하는 ‘社神’과 오곡을 주관하는 ‘稷神’에게 드리는 국가적인 제사이다. 사직제의 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 시대에 이르러 왕실의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종묘대제와 더불어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중요한 의례이다. 조선은 태조 3년(1394)에 경복궁 동쪽의 종묘에 대비시켜 서쪽에 ‘社稷壇’을 설치하고, 사직단의 동서쪽에는 각각 ‘社壇’과 ‘稷壇’을 배치하였다. 사단에는 ‘國社’의 신위를 봉안하고 ‘后土神’을 배향시켰으며, 직단에는 ‘國稷’의 신위를 봉안하고 ‘后稷神’을 배향시켰다. 사직대제의 ‘祭儀’절차, ‘祭需’, ‘祭服’, 제례악(祭禮樂), 무용(佾舞) 등은 조선 전·후기와 대한제국 시기마다 편찬된 의례서에 따라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전기에는 성종 5년(1474)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의례절차에 따라 제례를 거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선후기에는 정조 7년(1783)에 작성된 『사직서의례』에 의해 유교적 의례로 봉행하였다. 한편 황제국임을 선포한 대한제국 시기인 1897년부터는 『대한예전』에 의해 독립국가 황제의로서 시

48) 임돈희, 『조상제례』, 대원사, 1990.

행되었고, 현재의 의례는 대체로 대한제국의 의례를 따르고 있다.

사직단에 치르는 제사는 봄, 가을 그리고 동지 뒤 세 번째 무일인 납일에 치르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왕의 친제되며 그밖에 기도하고 알리는 기고제,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보사제가 있고, 기우제나 기곡제가 있었다. 이 가운데 춘추 납일의 사직 대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제관으로는 왕이 초헌관, 왕세자가 아헌관, 영의정이 종헌관이 되어 종묘와 같고 그 외에도 많은 각종 집례관이 따른다. 제사 절차 역시 종묘와 거의 같아서 제사 8일 전에 재계가 시작되어 4일 동안 산재하고 3일 동안 치재하며 치재 마지막 날에 왕이 재궁에 든다. 제사일에 전폐하고 모든 진설이 이루어지면 초헌, 아헌, 종헌의 순으로 작헌례가 행해지고 이어서 음복, 철번두한 뒤에 축관과 폐백을 구덩이에 묻으면 식이 끝나게 된다. 이 사직의례에도 종묘제례 때와 마찬가지로 음악과 무용이 연주된다. 그리고 제관의 위치를 살펴보면, 제관과 집례관은 동문으로 들어와서 초헌관인 왕은 북신문과 유의 북문 사이에 마련된 판 위에 자리하고 그 아래로 아헌관, 종헌관 및 집례관이 선다. 단 아래 북쪽에 헌가가 마련되며 유<sup>49)</sup> 안의 단위 북쪽에 등가가 마련된다. 각 신단의 동북 모서리에 음복위가 마련되며 단의 북쪽 끝에는 구덩이가 설치된다.

왕이나 황제가 친히 거행하는 <親祭儀>의 의식절차는 ‘時日’, ‘齋戒’, ‘親臨誓戒’, ‘陳設’, ‘親傳香祝’, ‘車駕出宮’, ‘親省牲器’, ‘省牲器’, ‘奠幣’, ‘進熟’ 및 ‘車駕還宮’의 순서였다. 현재 사직단에서 거행되는 사직대체는 전폐부터 ‘迎神禮’, ‘初獻禮’, ‘亞獻禮’, ‘終獻禮’, ‘飲福禮’ 및 ‘望禮’를 의식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직단에 진설되는 제수는 소·돼지·양의 생고기를 비롯한 각종 곡식을 늘어놓는다. 초헌관의 제복은 구장면복을 갖추고 제관은 금관조복을 갖추어 엄숙한 행사공간을 이끌면서, 국가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표출한다. <社稷大祭>는 2000년 10월 19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었으며, 보유단체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인정되었다.

---

49) 방형으로 된 사직단의 주위에는 ‘유’라는 울타리가 사방에 둘러지는데 속계와 성계를 구분하는 뜻이 있다.

## 2) 春秋祭와 乾時大祭

春秋祭와 乾時大祭는 三姓穴에서 행하기 때문에 穴祭라 하는데 춘추제 때는 6위에, 건시제는 3위에 제물을 준비한다.

삼성혈에 처음 설단하여 치제한 것은 신라 내해왕(奈解王) 26년(221)부터 이루어졌다(남사집략). 그 후 고려 예종 6년(1111)에 광양당이라는 신당을 만들고 무당들이 삼신인의 용출과정을 '본풀이' 형식으로 연출, 치제하다가 조선 중종 21년(1526)에 목사 이수동이 혈 앞에 단을 쌓고 세말 상정일에 유교식으로 향사했는데 향청에 위토를 성급하고 혈제를 주관케 하였다.

1699년 유한명 목사 때 혈단 동쪽에 祀宇를 세우고 춘추제를 지내도록 조치하고 1702년, 목사 李衡祥에 의하여 祀宇를 가락천 동쪽 고령전으로 옮겨 세우고 장례를 올려 삼성사의 사액을 창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729년에 고한준 부만옹 등이 상소하였으나 환급되고 영조 때까지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정조 9년(1783)에 제주유학 양경천의 상언에 따라 삼성사가 여필 선택되었다.

### (가) 春秋祭

'春秋祭'는 耽羅(耽羅:毛羅)를 開荒한 三乙那의 位牌가 奉安된 三姓殿에서 매년 봄(4월 10일)과 가을(10월 10일)에 삼성후손들이 모시는 제사이다. 서기 1699년부터 춘추제(祠祭)가 시작된 이후 1785년 正祖임금이 '三姓祠'라는 현판을 친히 써서 내렸다. 이 祠祭의 삼헌관은 三姓이 윤번제로 한다. 제향절차는 宗廟 成均館 孔子廟 釋奠과 대동소이하며 毛羅王의 제사이므로 제관은 金冠祭服을 착용한다.

#### 祠祭祝

毛羅始祖三乙那 伏以 三神首出 以開天荒 澤溢南瀛 永奠東方 爰及苗裔 崇奉禴嘗 謹以牲幣醴齊 粢盛庶品 式陳明薦以耽羅星主高氏 耽羅王子高氏 耽羅徒內高氏 配 尙饗

#### 춘추제 物種記

犧牲 3首, 幣布 18尺, 幣紙 18張, 祝笏紙 2張, 香木 6束, 洋燭 3封, 祭酒 3樽, 白米 18升, 粟米 18升, 肉脯 18條, 肉醢 18條, 魚鱸 6盒, 魚醢 6盒, 柚子 6個, 黃栗 6

盒, 林檎 6個, 大棗 6盒, 榧子 6盒, 形塩 6盒, 芹菹 6盒, 菁菹 6盒, 山薇 6盒, 甘藷 6盒, 猪醢 6盒, 生腹 6盒

### (나) 乾時大祭

‘乾時大祭’는 三神人の 湧出로 毛羅가 開荒한 것을 기려 三姓穴壇에서 모시는 제사이다. 서기 1526년(중종21년) 처음 致祭할 때는 毛興壇享 또는 穴祭라 하여 至月上丁日(동짓달 첫번째 丁日)에 봉향했는데 1973년부터 乾始大祭로 개칭하여 매년 12월 10일 11시에 베풀어진다.

이 삼성혈제는 國泰民安을 기원하는 國祭로 받들다가 濟州道祭로 봉향하고 있다. 초헌관에는 제주도지사, 아헌관 및 종헌관에는 기관장 또는 지방유지 중에서 천거한다. 제향절차는 宗廟, 成均館 孔子廟釋奠과 대동소이하며 毛羅王의 제사이므로 제관은 金冠祭服을 착용한다.

毛羅始祖 건시대제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毛羅始祖三乙那伏以 天啓三聖 宣郎人文 猗歟那歟 厥初生民 節屆一陽 追遠之辰  
謹以 牲幣禮齊 粢盛庶品 式陳明薦 尙饗

#### 건시대제 物種記

犧牲 3首, 幣布 3匹, 幣紙 18張, 祝笏紙 2張, 香木 3束, 洋燭 3封, 祭酒 3樽, 白米 18升, 粟米 18升, 大肉 9斤, 肉脯 9斤, 肉脯醢 18條, 魚鱸 9尾, 魚醢 9尾, 肉醢 3盒, 柚子 3盒, 黃栗 3盒, 林檎 3盒, 大棗 3盒, 榧子 3盒, 形塩 3盒, 芹菹 3盒, 菁菹 3盒, 山薇 3盒, 甘藷 3盒, 猪醢 3盒, 生腹 3盒

이상으로 보면 춘추제는 자손들의 시조에 대한 제사이고 건시제는 탐라건국주에 대한 제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제관들이 입는 옷은 평상복이 아닌 다른 금관 제복을 입는다. 또한 조상에 대한 배례는 2번이지만 왕에 대한 제사이기에 배례를 4번 한다.

· 정성기간 : 제일 3일 전에 제관 및 제집사는 삼성혈 전사청에 입제한다. 전사청에서는 제물단자록, 제관록을 작성한다. 제물의 종류와 양을 적어놓은 것이 제물

단자룩이고 제관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제관룩이다. 제관들은 입제 후 제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제사를 잘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들은 한번 입제하면 일체 바깥 출입을 금한다. 아침 저녁으로 목욕제계함으로써 가능한 한 정성을 다한다. 조상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 제물 : 제물의 종류는 앞의 내용대로이지만 달라지는 것을 보면 1993년까지는 메를 2개 올렸었는데 1994년부터는 도량서직 4개를 올리고 있다.

· 희생 : 돼지 머리를 올린다.

· 제비 : 삼성혈 관람료인 재단경비가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삼성혈 유지, 보수에 치중하며 그 외로 삼성재단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모자란 제비를 충당한다.

· 제관 : 13제관이 있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대축, 알자, 찬자, 봉향, 봉로, 봉작, 전작, 사준, 전사관이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을 3헌관이라 하며 나머지를 집사라 한다. 이들이 담당하는 일을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 3헌관 : 제를 치르는데 중심이 되는 제관이다. 특히 초헌관은 제의 주재자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가장 덕망이 있는 자로 선정한다.

· 집례 : 제를 집전하는 자이다. 집사를 총괄하며 제의 진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는데 홀기를 부름으로써 진행시킨다.

· 대축 : 신에게 축을 고하는 자이다.

· 알자 : 집례가 부르는 홀기 순서에 따라 헌관들을 안내하는 자이다. 헌관은 집례가 홀기를 부르면 알자의 인도를 받아 전폐례부터 행한다.

· 찬자 : 집례가 ‘국궁배’하면 찬자는 ‘홍’하고 부르는 자이다.

· 봉향 : 집례가 ‘三上香’이라고 홀기를 부르면 봉향은 향목 가지를 헌관에게 드리는 역할을 한다.

· 봉로 : 봉향이 향목 가지를 헌관에게 드릴 때 봉로는 향로를 준비했다가 드리는 역할을 한다.

· 봉작 : 헌관에게 술잔을 드리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전작이 받아 신위에 올린다.

· 전작 : 봉작에게서 술잔을 받은 헌관은 전작에게 준다. 그러면 전작은 이것을 받아 헌관을 대신하여 신위에 올린다.

· 사준 : 집례가 ‘擧羈酌酒’ 하면 보자기로 덮혀 있는 술단지에서 자그마한 국자로 술을 떠서 술잔에 채우는 일을 한다.

· 전사관 : 이사들 중에서 선출하며 제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일을 담당한다. 제물을 준비하고 진설하는 일은 물론 참석자의 음복에까지 참여하여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금은 전사관은 제의를 지휘 통괄하며 나머지 제물 준비에서 진설까지 실질적인 일은 有士가 한다. 유사는 고, 양, 부 각 1인씩으로 구성되며 양력 1일과 15일 삼성단에 분향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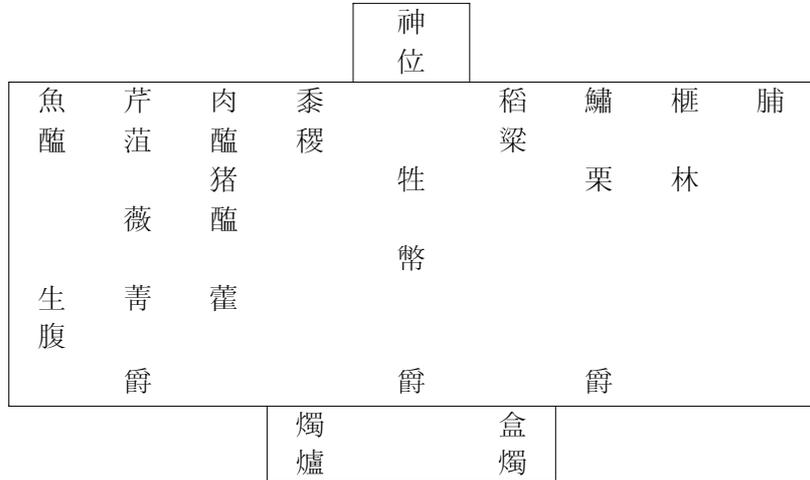
· 제관 선정 : 제사 한 달 전에 덕망이 있는 분을 추천하여 올리면 추대회의에서 추인을 한다. 추대회의는 재단이사회의 임원으로 각 종문의 임원이기도 하다. 춘추제에는 고, 양, 부씨에서 추천되고 윤번제로 초헌관을 담당한다. 그러나 건시대제 때는 성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추천하는데 3헌관은 대개 기관장이 담당하는데 초헌관은 도지사가 맡는다. 그러나 집사 이하는 타성에서 참여하여 추천할 수 있다.

· 참가 : 춘추제 때는 고, 양, 부 3성에 대한 제의이므로 정성기간 동안 후손들은 제물을 마련하여 찾아온다. 이 때 제주는 꼭 3병씩 가져온다. 예를 들어 고씨가 오면서 고을나에게만 헌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부 삼성에게 다 헌작하는 것이다. 건시대제 때도 춘추제와 같이 제주를 3병 마련한다. 이는 탐라 건국주인 신자 3인이 동시에 용출했기 때문이다.

고씨 중 특별히 능력이나 관심이 있는 자들은 제주 6병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삼성 위패 좌측에 있는 3고씨를 위한 것이다. 삼성단 왼쪽에는 3고씨가 모셔져 있는데 성주고씨, 왕자고씨, 도내고씨이다. 제물은 양쪽에 다 올리는데 분향만 안 한다.

· 음복 : 제사는 보통 10시부터 시작하여 1시간 반 정도면 끝난다. 그러면 전사청과 마당을 이용하여 참석자들이 음복한다. 참석인원은 500여명 정도 되며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 100근을 기준으로 하여 돼지는 5마리 정도가 필요하다. 음복시 참가자에게 밥, 국을 만들어 제공하지 못하니까 도시락을 만들어 제공한다.

<陳設圖>



제관선출 : 10월 10일 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9월 10일날 회의를 연다. 미리 고양부 삼성 중문에서 우리 집안의 헌관은 이번 누구를 추천하자고 결정된다. 그러면 한 달 전 9월 10일날 제관 추대회의를 연다. 이때 추천은 거의가 다 받아들인다. 단 윤번제로 한다. 추대회의는 재단 이사회의 임원이 되는 것이다. 각 중문의 임원들이 되는 것이다. 참가 자격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춘추제 홀기<sup>50)</sup>

50) 春秋祭 笏記 原文：謁者 引祝及諸執事 入就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引詣盥洗位 西向立 灌水 各就位 謁者引獻官以下入就拜位 謁者進初獻官之左 白有司 謹具請行事 四拜 獻官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行奠幣禮 謁者 引初獻官 詣盥洗位 西向立 搯笏 盥手 執笏 引詣毛羅始祖三乙那神位前 西向立 跪 搯笏 三上香 獻幣 執笏 俯伏 興 平身引詣 耽羅星主 王者 徒內 三高氏神位前 跪 搯笏 三上香 獻幣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行初獻禮 謁者引 初獻官 詣樽所 西向立 執樽者 舉纂酌酒 引詣 三乙那神位前 西向立 跪 搯笏 獻酌執笏俯伏與小退跪 讀祝 俯伏 興 平身 引詣 星主 王者 徒內 三高氏神位前 跪 搯笏 獻爵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伏位 行亞獻禮 謁者 引亞獻官 詣盥洗位 西向立 搯笏 盥手 執笏 引詣樽所 西向立 執樽者 酌酒 引詣 三乙那神位前 西向立 跪 搯笏 獻爵 執笏 俯伏 興 平身引詣 星主 王者 徒內 三高氏神位前 跪 搯笏 獻爵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伏位 行終獻禮 謁者 終獻官 詣盥洗位 西向立 搯笏 盥手 執笏 引詣樽所 西向立 執樽者 舉纂酌酒 引詣 三乙那神位前 西向立 跪 搯笏 獻爵 執笏 俯伏 興 平身引詣 星主 王者 徒內 三高氏神位前 跪 搯笏 獻爵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伏位 飲福受祖 謁者引 初獻官 詣飲福位 南向立 跪 搯笏 執事者 以爵授獻官 獻官授爵 飲啐爵

알자가 대축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배례할 위치로 나가시오.

사배

대축 이하 여러 집사는 네 번 절하시오.

찬자 연창 : 국궁 배 흥 평신.

손을 씻을 위치로 나가시오

서쪽을 향하여 손을 씻고 제각기 제위치로 나가시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배례하는 자리로 나가시오.

알자는 헌관의 왼쪽으로 나가 서서 유사가 삼가 행사하려 합니다. 라고 사퇴시오.

사배

헌관은 네 번 절하시오.

찬자 연창 : 국궁 배 흥 평신

전폐례를 행함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손을 씻는 위치로 나가시오

헌관은 서쪽을 향하여 서서 홀을 가다듬고 손을 씻어 다시 홀을 잡고, 탁라 시  
조 삼을나 신위 앞으로 나아가시오.

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고 홀을 가다듬어 세 번 향을 사르고 폐백을 드리시오.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알자는 성주 왕자 도내 삼고씨 신위 앞으로 헌관을 인도하시오.

헌관은 꿇어 앉아 홀을 가다듬고, 향을 세 번 사른 후 폐백을 드리시오.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초헌례를 행함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술동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서시오.

술동이를 든 집사는 술보자기를 걷어 술을 잔에 채우시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삼을나 신위 앞에 나가시오.

헌관은 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홀을 가다듬고 잔을 올린 다음 다시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 앉으시오.

대축은 축문을 읽으시오.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알자는 성주 왕자 도내 삼고씨 신위 앞으로 헌관을 인도하시오.

헌관은 꿇어 앉아 홀을 가다듬고, 잔을 올린 후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아헌례를 행함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손을 씻는 위치로 나가시오.

헌관은 서쪽을 향하여 서서 홀을 가다듬고 손을 씻어 다시 홀을 잡으시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술동이 있는 곳으로 가시오.  
헌관은 서쪽을 향하여 서시오.  
술동이를 든 집사는 술보자기를 걷어 술을 잔에 채우시오.  
알자는 삼을나 신위 앞으로 헌관을 인도하시오.  
헌관은 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홀을 가다듬고 잔을 올린 다음 다시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알자는 성주 왕자 도내 삼고씨 신위 앞으로 헌관을 인도하시오.  
헌관은 꿇어 앉아 홀을 가다듬고 잔을 올린 후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중헌례를 행함

알자는 중헌관을 인도하여 손을 씻는 위치로 나가시오.  
헌관은 서쪽을 향하여 서서 홀을 가다듬고 손을 씻어 다시 홀을 잡으시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술동이 있는 곳으로 가시오.  
헌관은 서쪽을 향하여 서시오.  
술동이를 든 집사는 술보자기를 걷어 술을 잔에 채우시오.  
알자는 삼을라 신위 앞으로 헌관을 인도하시오.  
헌관은 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홀을 가다듬고 잔을 올린 다음 다시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알자는 성주 왕자 도내 삼고씨 신위 앞으로 헌관을 인도하시오.  
헌관은 꿇어 앉아 홀을 가다듬고 잔을 올린 후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복주(福酒)를 마시고 조육(俎肉)을 받음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로 나가시오.  
헌관은 남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홀을 가다듬으면 집사자가 헌관에게 잔을 드  
리면, 헌관은 잔을 받아 마시고 나서 집사자에게 빈 잔을 돌려주면 집사자는 빈  
잔을 받고 또 집사자가 헌관에게 조육대를 드리면 헌관은 조육을 받아 먹은 다음  
빈 조육대를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는 빈 조육대를 받으시오.  
헌관은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사배

헌관 및 지위에 있는 사람(전사관 및 예차헌관)은 모두 네 번 절하시오.

찬자 연창 : 국궁 배 흥 평신.

#### 사배

헌관 및 위에 있는 사람(집전위원)은 모두 네 번 절하시오.

찬자 연창 : 국궁 배 흥 평신

축문과 폐백을 불사름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료(望燎) 위치로 나가시오.  
 헌관은 서쪽을 향하여 서시오.  
 축문과 폐백을 불사르시오.  
 알자는 헌관의 왼쪽으로 가서 행폐가 끝났음을 사뢰시오.  
 초헌관 이하 차례 차례 나가시오.  
 여러 집사는 모두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시오.

이렇게 볼 때 춘추제와 건시제의 차이는 삼을나 이외에 성주, 왕자, 도내 세 고씨 신위에 대한 행제 여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세 고씨에 대한 제를 지내는 것은 자손이 조상에 대한 예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춘추제 [三姓祠祭] 이고 건국주로서의 三姓에 대한 제를 올리는 것은 건시제인 셈이다. 둘째, 제물에서는 거의 비슷하면서도 三高氏에 대한 제물 때문에 춘추제가 건시제보다 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또한 제관이 고,양,부 중심이면 춘추제요, 그렇지 않으면 건시제이다.

### 3) 三姓祭儀의 意味

이제까지 무속의례인 당굿과 남성 중심의 마을제인 醮祭, 그리고 조선 왕실의 宗廟祭禮와 社稷大祭, 삼성제의로서의 춘추제와 건시대제의 제 양상 및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왔다. 여기서는 이러한 의례가 행해졌던 祭堂들의 형태를 살피고, 三姓祭儀도 무속의례인 당굿에서 유식화 과정을 거쳐서 춘추제와 건시대제로 치러지고 있는데, 이 유식화된 삼성제의가 갖는 의례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먼저 당굿과 포제를 행하는 마을제당으로 儒式祭壇과 巫式祭堂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무식제당은 다시 神木型, 神木堂字型, 窟型, 窟神木型, 石垣型, 其他型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巫式祭堂이 보다 원초적인 형태요, 儒式祭壇은 후기적인 형태라 하겠다. 이는 유식제단이 오늘날 단지 祭場的인 기능만 있는데 비해 무식제단은 神의 常住處임과 동시에 祭場으로서의 기능이 있어, 후자가 더 신성도가 높고 나아가 역사성이 오렘을 말해 주고, 문헌의 기록 및 우리나라의 宗教史的 면에서 민간의 유식 의례가 후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주도의 마을제당은 처음 山, 藪, 川, 池,

邱陵, 木石 등 자연물 그대로를 巫式祭堂으로 삼아 오다가 차차 堂宇形態가 첨가되어 갔고, 또 유식 의례가 보급됨에 따라 유식제단이 형성되어 간 것이라 볼 것이다.

祭堂은 巫式祭堂이 선행하였음은 그 제의도 巫式祭儀가 선행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巫式 마을제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儒式祭禮法이 남성들에게 보급되면서 오늘날 여성들의 신앙으로 남아 여성들의 관리하에 본향당굿, 영등굿, 잠수굿 등으로 잔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巫式 마을제 일색인 제주에 조선시대에 새로 도입된 것이 儒式의 祭壇과 그 祭儀이다. 社稷壇 醮祭廟 등이 그런 것이다. 문헌에 보이는 社稷壇 醮祭廟 등은 국가적 배경에서 권장된 儒式 官祭壇이었을 것이다. 이 유식 제단형식과 제례법이 민간의 남성들에게 보급되자 남성들 간에 민간신앙화하여 포제라는 새로운 유식 마을제가 新生하였음을 쉽게 추찰할 수 있다. 유식 마을제 중 里社之神位, 洞社之神位, 醮神之位 등 一個 神位를 대상으로 단일 제의를 하는 마을제는 官의 정통적인 社稷祭 내지 醮祭를 이어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녕리의 포제, 노형동 광평마을의 포제 등 여러 마을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유식제례를 철저히 배워 받은 남성사회라 할지라도 ‘男女群聚’하여 무식 마을제를 지내던 전통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儒巫 혼합 내지는 巫式 마을제의 유식화한 마을제를 만들어 내게 마련인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마을제를 儒巫混成의 醮祭라 할 수 있다. 이 형식의 醮祭는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外儒內巫의 형식이라 할 만한 포제들이다. 이것은 제의형식은 유식이지만 실제의 대상신은 토속적 무속적인 것을 의미한다. 애월읍 광령리 포제의 醮神과 土地神, 조천읍 북촌리 포제의 醮神과 諸神之位 등은 무속적 마을제를 외형상 유식화한 것임을 말해 준다.

둘째는 儒巫共存 形式이라 할 만한 마을제들이다. 애월읍 광령2리(有信洞), 제주시 해안동, 애월읍 상귀리 등은 년 2회의 마을제를 하는데 1회(正月)는 巫式 당굿으로 여성 관리하에 하고, 1회(7월)는 儒式 포제로 남성이 관리하게 하고 있다. 이는 남성 사회에서도 儒巫 마을제가 공존하고 있는 예이다.

셋째는 儒式을 먼저 하고 巫式을 나중에 하는 형식을 취한 마을제이다. 애월읍 애

월리의 포제 후 같은 날 바로 하는 해신당굿, 조천읍 북촌리의 포제 후 바로 당일 치르는 도청굿(지금은 儒式化 했다가 없어졌음) 거릿제(지금은 없어졌음) 등 유식 마을제 후 무식 마을제를 이어 하는 것은 그 좋은 예다.

넷째는 儒大 巫小의 형식이라 할 만한 포제들이다. 애월읍 하귀리의 포제에서 포제 行祭 후 본향당 參祭를 下祭官으로 하여금 하는 것, 조천읍 북촌리에서 포제 행제 전 하제관으로 하여금 본향당 參祀를 하는 것 등은 유식 포제를 크게 本祭로 하고 무식 마을제당에는 곁들여 작게 고사지내는 형식인 것이다.

이처럼 유식 포제는 무식 마을제의 전통을 이어 받아 儒巫 混成 내지는 유식화한 마을제로 변모하게 된다.

이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재는 三姓祠도 儒式祭壇으로 ‘春秋祭’와 ‘건시대제’를 올리는 祭堂이지만, 과거에는 巫式祭堂으로 巫俗儀禮로 三乙那神을 모셨던 祭堂임을 짐작하게 한다. 三姓祭儀가 儒式化 되면서 祭堂도 당연한 변모라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유식화된 의례를 통해서 삼성신화의 성격을 헤아려 보게 한다.

‘春秋祭’는 三乙那의 位牌가 奉安된 三姓殿에서 매년 봄(4월 10일)과 가을(10월 10일)에 삼성후손들이 모시는 제사로 그 성격이 종묘제례와 흡사하다. 즉, ① 후손들이 제관을 맡는 점, ② 금관제복을 갖추어 입는 점, ③ 의례절차가 釋奠祭를 따르는 점, ④ 정전·강녕전이나 三姓殿 등 室內에서 제를 지내는 점, ⑤ 날음식을 제물로 올리는 점, ⑥ 계절에 따라 시제로 지내는 점 등이 같다. 따라서 종묘제례가 왕실의 의례로써 나라를 건국한 시조를 비롯한 역대 왕들에 대한 제로 조상신에게 올리는 엄숙한 의식인 것처럼 三姓祠의 ‘春秋祭’도 高·良·夫 三姓의 시조인 三乙那에 대한 의례임을 보여주고 있어, 삼성신화가 高·良·夫 三姓의 始祖神話라는 의식을 의례가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乾時大祭’는 三神人의 湧出로 毛羅가 開荒한 것을 기려 三姓穴壇에서 매년 12월에 한 번 모시는 제사로 그 성격이 ‘社稷大祭’와 흡사하다. 즉, ① 제단은 사직단, 삼성혈단에서 제를 모시는 점, ② 제물로 생고기를 사용하는 점, ③ 의례절차가 釋奠祭를 따르는 점, ④ 금관제복을 갖추어 입는 점, ⑤ 국가적 차원의 제사인 점,

⑥ 대상신이 사직신 또는 건국신인 점, ⑦ 제관이 왕 또는 道伯인 점 등이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한나라의 왕은 社稷의 주체로서 나라가 있으면 사직의 제사가 행해지고 나라가 망하면 폐지된다는 점에서 사직은 흔히 국가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조선시대 ‘社稷大祭’는 종묘와 함께 국가의 중요한 의식이었다. 단지 종묘와 다른 점은 한나라에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비해 사직은 도성은 물론 지방의 각 행정 단위마다 설치되어 왕을 대신하여 지방 수령이 제를 지내는 점이다. 곧 사직은 한나라의 주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三姓祠의 ‘乾時大祭’도 그 祭神이 탐라국 ‘社稷神’에 대한 의례로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해 보게 한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주의 무속의례(당굿)가 유식화된 山祭나 醮祭의 對象神이 土地之神, 里社之神, 洞社之神, 醮神인 점이다. ‘乾時大祭’가 국가의 토지와 오곡을 관장하는 탐라국 ‘社稷神’에 대한 祭로써 나라의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중요한 의례로 여겨지던 것이 탐라국 왕권이 약화되면서 자연히 그 성격도 변했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결국 현재 삼성사에서 치제하고 있는 ‘春秋祭’와 ‘乾時大祭’가 무속의례(당굿)에서 유교식 의례로 변화되었으며, 그 과정에 내포된 제의적 의미는 ‘春秋祭’는 종묘제례와 같이 조상신에 대한 제사로 지내져 왔으며, ‘乾時大祭’는 社稷神에 대한 제례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례적 측면에서 볼 때 삼성신화는 그 성격을 시조신화 또는 건국신화로 볼 수 있다.

## IV. 三姓神話의 教育的 意味

### 1. 口碑文學 教育的 必要性 및 目的

문학교육은 과학 물질문명의 발달로 메말라 버린 현대인의 심성을 회복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내기 위하여 필요하다. 특히 구비문학은 민중의 신앙, 관습, 의식 구조, 가치관 등을 반영하며, 한 민족이 지닌 문학적 창조력의 바탕으로서 여러 형태의 기록문학을 산출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교육적 필요성이 요구된다.

문학 교육의 목적이 작품의 이해나 감상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상상력을 풍부하게 길러 주는데 있다고 한다면 神話가 상상력의 기본적인 틀과 문학 형식의 기본적인 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화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문화의 기층이자 원형이 무속신화 체계를 주축으로 우리 고대 신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구비문학도 문학 교육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구비문학 교육의 목적은 문학 교육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구비문학의 그 교육성을 고려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51)</sup>

첫째, 구비문학의 개념 및 기초 이론을 구비문학 작품에 적용하여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구비문학의 개념 및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깊이 음미하는 ‘감상’이 구비문학 교육이 일차적인 목적이 된다.

둘째, 구비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하여 체험의 확대와 정서의 순화를 기하고, 상상력, 창조력, 통찰력을 기르며, 심미성·도덕성을 함양하는데 있다. 학생들은 구비문학 작품을 배우고 읽는 동안에 문학적 체험을 하게 되며, 정서를 곱고 아름답

51) 김기창, 『한국구비문학교육사』, 집문당, 1992. pp.26~29.

게 다듬어 나갈 수 있게 된다. 구비문학은 상상력의 소산이므로 학생은 이를 통해 상상력을 기를 수 있으며, 상상력은 현실을 초월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여 창조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또 구비문학은 작품 속에 다채롭게 펼쳐지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비판하면서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통찰력이 길러진다. 그리고 구비문학 작품은 인간미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정의감·책임감·동정심 등을 갖게 하여 도덕성을 기를 수 있다.

셋째, 知·情·意를 골고루 갖춘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다. 현대사회가 지나치게 지적인 면을 강조하고 능률과 실질만을 숭상하는 데 상대적으로 구비문학 작품은 정의적인 면을 교육할 수 있으므로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知·情·意를 골고루 갖춘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우리의 전통 문화 교육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구비문학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생활 유산으로 그 속에서 조상들의 풍속, 습관, 사상, 신앙, 가치관, 꿈과 소망, 웃음과 지혜 등 전통 문화 요소들이 많이 용해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비문학 교육을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며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 2. 제7차 敎育課程에서의 文學 敎育

문학은 언어를 매체로 한 인생의 표현이며, 언어 예술이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작가의 정서 속에 용해된 감동적 사상이며, 문자라는 언어로 인간의 사상과 감성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이 인간의 도덕적 삶을 변화시키고 감정 이입을 통하여 대리 경험의 세계를 전개하며 자신과 타인을 새로운 시각에서 인식하게 하고 정서를 함양시킨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문학을 한다는 것은 곧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을 교육적 적용을 통해 교육현장에 끌어들이는 것을 문학교육이라 할 수 있다.

문학교육은 문학에 대한 지식이나 언어적 현상에 초점을 두기보다 그것을 얼마나

잘 감상하고,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하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학 교육의 관심이 문학 작품 자체의 구성이나 인물 등의 탐구에 머물러서는 문학 교육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진정한 문학 교육은 풍부한 상상력을 통하여 문학을 감상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하게 함으로써 문학을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한 부분이 되게 해야 한다는 명제에 도달하게 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의 신장’을 국어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문학 교육 또한,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관련된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서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문학이 상상의 세계이고, 더 나아가 창조의 세계라는 점에서, 문학 교육은 국어과 교육에서의 창의성 실현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해와 감상 위주 문학 교육이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의 향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학 교육 전반에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의 이해와 감상 능력인 문학 능력은 정확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언어 사용과 문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포괄하며, 이러한 문학 능력의 향상은 결국, 국어사용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학 교육을 통한 국어사용 능력의 향상은 창의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의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은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에 관한 태도’의 학습에 개별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실제의 문학 활동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내용 체계’를 구조화하였다.

문학 영역의 학년별 내용은 내용 자체의 난이도, 텍스트 등을 고려하고, 계열성과 반복성을 강조하여 배열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명문화한 ‘문학의 창작’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전문적인 문예작품의 창작보다 문학작품에 대한 능동적 반응을 강조한 것으로 문학적 표현활동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말하기, 쓰기 영역과 긴밀하게 관련지어 배열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작품의 이해’와 ‘문학 작품 감상의 실제’를 분리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뤄짐을 감안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으로 하였다. 이는 단순히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데서 탈피하여 작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문학의 창작은 수준 높은 작품의 창작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 문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기초적인 것을 포함시켰다.

‘문학의 실제’에서는 시(동시), 소설(동화, 이야기), 희곡(극본), 수필 등 문학의 실제 작품을 통하여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에 대한 태도’ 학습이 이뤄지도록 내용을 설계하였다.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를 모색하고, 문학 작품의 수용 활동은 창의성과 적절성을 평가한다. 문학 작품의 창작 활동 평가는 창작의 창의성과 진실성을 평가하되, 작품 구성 요소의 분석적 평가보다 총체적 평가를 지향하고, 특히 전문가 수준을 요구하는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UNIVERSITY LIBRARY

### 3. 三姓神話의 教育的 意義

위에서 제시한 구비문학 교육의 목적 및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문학교육의 방향을 토대로 삼성신화 및 그 의례가 지니는 교육적 의의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설화가 구전되다가 문헌에 정착하는 과정을 알 수 있으며, 문헌 정착 후 구비문학으로서의 유동성이 사라지고 기록문학으로만 인식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삼성신화는 그 원형이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에서 발생하여 三姓氏族의 시조신화로 그리고 탐라국의 건국신화로 구비 전승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늘날까지 구비전승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헌상에 기록되어 정착되고 있다. 이것은 판소리계 소설들이 근원설화에서 출발하여 고대소설로 형성 발전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구비문학이 어떻게 기록문학으로 정착되어 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요소로 활용하는데 충분하다.

둘째, 설화문학으로써의 흥미성과 교훈성을 알 수 있다.

삼성신화의 三神人 地中湧出 話素나 三神女 箱舟漂着 婚姻 話素는 신화로서의 神聖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흥미를 불러일으켜 즐거움을 준다. 또 인류 역사의 변천과 국가 형성 과정을 보면 통치 지역이나 권력을 중심으로 한 투쟁의 연속인 것이 상례처럼 보이지만 三神人이 三神女를 맞이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이 배필을 정한 것이나 생활의 터전을 활을 쏘아 정하고 있는 점, 所居地를 정한 후에는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영토전쟁이 없었던 것은 오늘날 제주인의 평화를 애호하며 수눌음과 조냥정신 및 자립과 화합정신의 기틀이요,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어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도 부를 창조하였고 외세의 침략에 굴하지 아니한 강인한 개척의 정신을 이루었다는 윤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신화 형성기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타문화와의 영향 관계를 알 수 있다.

地中湧出한 三神人이 皮衣肉食하는 수렵생활을 하다가 三神女와 혼인하고, 一徒·二徒·三徒에 分居하고 있는 내용은 씨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넘어오는 단계의 문화 배경을 보여주며, 오곡의 씨와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온 三神女와 혼인하고 있는 점은 수렵생산형태에서 농목생산형태의 단계로 넘어오는 문화 배경을 보여준다. 또 삼신인이 표착한 三神女와 나이 차례로 혼인하는 점은 당시의 혼인제도, 즉 一夫一妻外婚制, 夫方居住婚姻形態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신화의 地中湧出 話素와 箱舟漂着 話素가 제주도, 일본의 구주 남부, 沖繩, 등에 분포하고 있어 남방계통의 문화 요소의 유입으로, 射矢卜地 話素가 북방계통의 문화 요소의 유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신화를 통해서 제주도 土着文化에 外來文化가 들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신화 속에 반영된 조상들의 가치관이나 의식 및 세계관을 알 수 있다.

삼성신화는 탐라국 건국신화로서 그 속에는 제주인들의 풍속, 생활, 신앙, 가치관, 사상 등이 녹아 있다. 三神人이 地中에서 湧出했다는 話素는 대지가 먹을 穀食, 과일 등을 여물게 하는 生殖力과 나아가 인간도 출생시킬 수 있다는 地母神 信仰을 읽을 수 있으며, 三神女가 오곡의 씨와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동해상 벽랑국에서

왔다는 話素에서는 海洋樂土의 他界信仰을, 그리고 高乙那·良乙那·夫乙那 三神人의 이름에서는 ‘崇高, 善良, 光明의 가치개념을 기본가치관으로 하여 거주지역 선정, 身分序列 등 사회조직, 사회질서, 사회계층에 확산시켜 당시 제주인의 삼분체계의 사고의 논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의 교육을 통해서 문학적 체험을 풍부히 하고, 제주인다운 삶의 여러 양식을 배우며,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신화를 통하여 문학의 허구성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학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 작자나 독자는 모두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문학은 현실에서 유추된 세계를 그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작자는 특유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문학이 허구적인 세계를 그린다고 해도 그것은 현실의 반영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문학의 진실성이라고 한다. 삼성신화도 허구지마는 그 속에 당시 탐라의 사회 문화적 현실을 담고 있으며, 전승 과정에 전승자들의 상상력이 첨삭되고 그 이면에 신화로써의 진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신화는 문학의 원형으로서 문학 교육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삼성신화와 관련된 삼성제의의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고대사회의 예술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신화에 따른 제의가 현재 삼성사에서 지내는 춘추제와 건시대제로 남아 있다. 이 삼성제의가 현재의 유교식 의례 이전에 무속의례인 당굿으로 행하였으며, 이 때 ‘男女群聚 具酒肉祭神’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제의와 집단가무가 분화되기 전 원시종합예술의 형태를 취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일곱째, 말하기, 듣기, 읽기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설화는 기록 이전의 말로 된 문학이며, 구연되는 문학이다. 말로 존재하고 말로 전달되며, 말로 전승되기 때문에 화자나 청자, 독자는 이를 통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등의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삼성신화 역시 문헌신화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구전설화도 존재하고 있어 말하기, 듣기, 읽기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V. 結 論

지금까지 삼성신화와 그 儀禮의 性格 및 教育的 意味에 대하여 논술했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신화는 그 중심 화소가 제주도 서사무가인 당신화의 地中湧出話素나 箱舟漂着話素, 射矢卜地 所居地 選定 話素 등과 공통성이 많다. 이것은 삼성신화의 원형을 제주의 당신화로 볼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남방계통과 북방계통의 신화 요소가 들어와 결합되면서 제주적인 새로운 신화로 창출되어, 삼신인집단의 시조신화로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다가 씨족 연합에 의한 부족사회가 형성되면서 탐라건국신화로 위상이 격상되게 되었다. 그러다가 탐라국의 약화와 문헌정착 과정을 거치면서 건국신화로써의 위상이 약화되고 조선조 조상숭배를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고양부 세 씨족 의해 시조신화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둘째, 삼성신화의 문화 배경은 땅에서 三神人이 솟아나고, 각각 세 지역으로 分居하여 정착하였다는 표현에서 그 사회가 三部組織 사회임을 말해주며, 그 계층도 君·臣·民의 종적 체계로 三分 되어 있어 씨족중심사회에서 三部組織을 갖춘 부족사회로 넘어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또 三神人의 地中湧出은 대지의 품속에서 생명이 산출된다는 원초적 사유의 반영으로 대지의 생식력을 토대로 한 地母神 信仰이 내재해 있다. 그리고 수렵하던 三神人이 五穀의 씨와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온 三神女와 혼인하는 것은 수렵 중심의 토착부족이 선진문화를 지닌 도래부족과의 결합으로 농경 중심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정하고 있는데 이 射矢卜地하여 所居地를 選定하는 화소는 長·次·三의 세 계층을 사회공간과 사회 질서의 인식 양상으로 파악하여 사회 질서 구조의 三分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 화소를 평등사회의 경쟁원칙을 발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長·次·三의 서열화를 위계적인 서열 우위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옳

지 않으며, 三神人이 세 범주의 신분으로 나누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곧 존귀와 비천의 상징으로 볼 수는 없다.

셋째, 제주도의 마을제는 무속식 의례인 당굿과 유교식 의례인 포제로 나눌 수 있다. 당굿과 포제는 원래 하나로 남녀 공유의 巫式 마을제였던 것이 조선시대에 와서 남성위주의 유교적 봉건질서가 확립되고, 무속을 천시하는 풍조와 동시에 유교식 제례법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이 주도하는 당굿과 남성이 주도하는 유교식 마을제로 분리된 것이다. 그러므로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는 마을의 자치와 관련하여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등을 빌고 집안마다 무사하길 비는 축문으로 보아 堂信仰(당굿)의 변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행하는 마을의 당굿이 소집단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게 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 유지하는데 기여는 것처럼 유교식 의례인 포제나 삼성제의도 당굿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들의 결속을 강화시키며, 마을 공동체 의식을 유지시킴으로써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삼성신화는 당신화와 그 화소의 유사성에서 볼 때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 三姓祠는 이전에 堂이었을 것이며, 三乙那神도 廣壤堂神과 같은 堂神으로 한라산출생계 또는 송당계의 본향당신과 관계있는 신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의례도 광양당굿과 마찬가지로 본래는 무속의례로 행했을 것이며, 高良夫 三氏族은 이 신을 奉祀했던 ‘단골’씨족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雙分的 堂信仰體系에서 발전된 신앙집단의 三分體系가 그들의 본향당신을 시조신으로 받들어 사회조직의 삼분체계와 같은 三神人의 3기능체계로 완성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삼성제의도 애초에 무속의례로 행해져 왔을 것이며, 후대에 와서 유식화되면서 오늘날 유식의례인 춘추제와 건시대제로 탈바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현재 三姓祭儀는 무속의례인 당굿에서 유식화 과정을 거쳐서 춘추제와 건시대제로 치러지고 있다. 그리고 이 ‘春秋祭’와 ‘乾時大祭’의 典型은 ‘宗廟祭禮’와 ‘社稷大祭’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유식화된 삼성제의가 갖는 의례의 의미로는 ‘春秋祭’가 종묘제례와 같이 조상신에 대한 제사로 지내져 왔고, ‘乾時大祭’는 社稷神에

대한 제례로 지내고 있는 점으로 보와 의례적 측면에서 삼성신화는 그 성격을 시조 신화 또는 건국신화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삼성신화의 교육적 의미는 구비문학 교육의 목적 및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문학교육의 방향을 전체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설화가 구전되다가 문헌에 정착하는 과정을 알 수 있으며, 문헌 정착 후 구비 문학으로서의 유동성이 사라지고 기록문학으로만 인식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2) 설화문학으로써의 흥미성과 교훈성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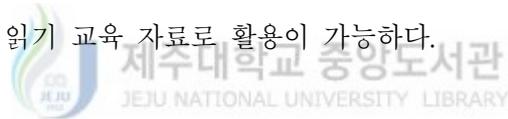
(3) 신화 형성기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타문화와의 영향 관계를 알 수 있다.

(4) 신화 속에 반영된 조상들의 가치관이나 의식 및 세계관을 알 수 있다.

(5) 신화를 통하여 문학의 허구성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6) 신화와 관련된 삼성제의의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고대사회의 예술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7) 말하기, 듣기, 읽기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參考文獻>

### <자료>

「영주지」

「제주고씨족보」

김석익, 「탐라기년」

이원진, 「탐라지」

이형상, 「병와전서」

### <단행본>

김기창, 「한국구비문학교육사」, 집문당, 1992.

김동욱, 「종묘와 사직」, 대원사, 1990.

온평리지 편찬위원회, 「온평리지」, 온평리지 편찬위원회, 1991.

임돈희, 「조상제례」, 대원사, 1990.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_\_\_\_\_,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_\_\_\_\_,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1982.

진성기, 「남국의 무가」(제1·2·3집),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0.

\_\_\_\_\_, 「남국의 신화」(제주도무속연구 제1집), 아림출판사, 1964.

탁라유사편찬위원회, 「탁라유사」, 양씨종회총본부, 1987.

탐라유사편찬위원회, 「탐라유사」, 부씨문중회총본부, 1988.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_\_\_\_\_,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논문>

- 강정식, “삼성신화의 전승양상”, 『제주문화연구』, 현지김영돈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 1993.
- 고평규, “고량부삼성사고”, 제주고씨대동보편찬위원회, 1983.
- 김광순, “시조신화의 양상”, 『국어국문학』 68·69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5.
- 김미란, “삼성신화에 대한 고찰” : 주인공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세어문학』 5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4.
- 김봉옥, “영주지”, 제남신문 1976. 2. 26.
- 김중업, “제주도의 개벽과 삼성설화”, 『탐라문화사』, 조약돌, 1986.
- 문경현, “탐라국 성주·왕자고”, 『성주』 4, 고씨종문회총본부, 1990.
-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993.
- 박용후, “영주지에 대한 고찰”,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1991.
- 설성경, “초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화갑기념논문총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 1992.
- 양영수, “한국신화와 그리스신화의 비교연구-제주도신화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8집, 1991.
- 양중해, “삼성신화와 혼인지”, 『국문학보』 3,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0.
- 이동립, “제주도신화에 대한 관견 -양·고·부을나 칭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보』 창간호, 1958.
- 이봉준, “제주도시조신화에 대한 일고-삼성혈 유래를 중심으로”, 『제주도 민속』 3호, 1965.
- 이수자,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화갑기념논문총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 1992. 10. 25.
- 이청규, “삼성신화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탐라문화』 제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장주근, “구전신화의 문헌신화화 과정-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삼성시조신화화를 중심으로”, 이두현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89.
- \_\_\_\_\_, “삼성신화 해석의 한 시도”, 『국어국문학』 22, 국어국문학회, 1960.
- \_\_\_\_\_, “삼성신화의 형성과 문헌정착과정”, 『탐라문화』 제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_\_\_\_\_,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민족과 문화』 I, 정음사, 1988.
- 전경수, “상고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연구』 4집, 제주도연구회, 1987.
- \_\_\_\_\_, “을나신화와 탐라국 산고”, 『제주도연구』 9집, 제주도연구회, 1992.
- \_\_\_\_\_, “을나신화의 문화전통과 탈전통”, 『탐라문화』 제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_\_\_\_\_, “제주연구와 용어의 탈식민화”,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 1992.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삼성신화의 종합적 검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 허남춘, “삼성신화일고찰”,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 1992.
- \_\_\_\_\_,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제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허 춘, “삼성신화 연구-성과와 과제”, 『탐라문화』 제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_\_\_\_\_, “제주도 무속신화의 문화영웅고”,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 1992.
- \_\_\_\_\_, “한국신화의 계열론(속)”, 『어문학논총』, 근제양순필박사화갑기념어문학논총간행위원회편, 학문사, 1993.
- 현길연, “풍수(단맥)설화에 대해서 일고찰-제주문화의 설화적기층접근을 위한

- 시도-”, 『한국문화인류학』 제10호, 1978.
- 현승환, “내 북에 산다게 설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992.
- \_\_\_\_\_, “삼공본풀이 형성과정 연구”,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 1992.
- \_\_\_\_\_,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문화계통”, 『제주문화연구』, 현지김영돈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 1993
- 현용준, “고대 한국민족의 해양타계”, 『한국민속연구논문선』 1, 일조각, 1982.
- \_\_\_\_\_, “무속신화 본풀이의 형성”,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1963.
- \_\_\_\_\_, “본풀이와 서사시”, 『제대학보』 4, 제주대학재건학생회, 1962.
- \_\_\_\_\_,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 \_\_\_\_\_, “제주도 개벽신화의 계통”, 『제주도연구』 5집, 제주도연구회, 1988.
- \_\_\_\_\_, “제주도 당신화고”, 『제주도』 3, 제주도, 1962.
- \_\_\_\_\_, “제주도 신화와 의례형식에서 본 문화의 계통”,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 \_\_\_\_\_, “당곳의 유식화와 삼성신화”, 『제주도』 14, 제주도, 1964.
- \_\_\_\_\_, “제주도신화에서 본 혼인”, 『제대학보』 9, 제주대학총학생회, 1967.
- 홍순만, “삼성설화로 열린 탐라국”, 『월간 관광제주』 12, 관광제주사, 1984.

<Abstract>

**The ritual character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e myth of three  
demi-gods(Samsung Myth)**

**Ko, Byung-suk**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Seung-whan**

As Dang in Jeju consists of Danggut with a shaman rite that is an exorcism in a public shrine and Dangbonpuri with a myth of Dang that explains the origin of Dang, there are also Chunchujae that is a rite performed in spring and autumn and Geonsidaejae that is one carried out in December in a myth of three demi-gods, Go Eulla, Yang Eulla and Bu Eulla that originally created Jeju Island.

The myth of three demi-gods has something close to do with that of Dang in that the motifs between them are very similar.

The Samseungsa in which three demi-gods are enshrined nowadays might be Dang before and its rite might originally be carried out like that of shamanism such as Gwangyangdanggut. The rite of shamanism had gone through the intellectualizing process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since the Chosun Dynasty. Also three families, the last name Ko, Yang and Bu, are regarded as the single tribe that worshiped three demi-gods.

The rite for three demi-gods has been carried out these days as Chunchujae and

Geonsidaejae through the intellectualizing process from Danggut of the shamanism rite.

And the typical pattern of these rites may be considered as Jongmyojaerye worshiping the founder of a country and Sajikdaejae enshrining the guardian gods.

The rite for three demi-gods shows that these myth has been recognized as the birthmyth of Tamna in that Chunchujae has been performed as the ritual for the founder of a country like Jongmyojaerye, and Geonsidaejae for the guardian god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given in the myth of three demi-gods can be represented as follows, presuming the aims oral tradition literature and the direction of literature education in the 7th curriculum.

We will be able to know,

1. how a narrative was transmitted orally and then settled in literature, and that the narrative is recognized only as a documentary literature after its mobility as a legend literature disappeared.

2. that it shows us interest and a lesson in a narrative literature.

3. the relationship between a sociocultural background and other cultures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myth.

4. our ancestors' values, senses and world views reflected in Myths.

And we will be able to confirm,

5. truthfulness and falsehood of literature through Myths.

6. the art form of ancient society by grasping the ceremony Samsung Rite related to Myths.

Lastly, you will apply the materials to education in class for speaking, listening and reading.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